

GOODFRIENDS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3년째 통일축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장기자랑과 화상 응원,
스님의 즉문즉설 등 참석한 북녘과 남녘 동포 모두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알찬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좋은벗들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사)좋은벗들은 다툼이 없는 삶을,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좋은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또한 모든 생명이 한 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획 1 — 좋은벗들 활동가 이야기

04 좋은벗들 이승욱공장 | 이승욱

좋은이웃되기 — 가정방문

- 15 기본전환도 할 수 있어 | 부천 차보경
- 20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 노원 박혜진
- 23 낯설었지만 좋았던 | 화성 윤영섭
- 27 마음이 짠했습니다 | 일산 김태윤
- 29 참 반가웠습니다 | 안양 신정화
- 30 상품권을 전하는 영광 | 광명 이정원
- 34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 창원 정세은
- 35 고려인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 광명 월광법사
- 36 잘 써주세요 | 남울산 한선화

추석명절방문

- 37 오랜만에 통화하고 | 서초 허남춘
- 38 에코백 반응이 좋아요 | 화성 조민경
- 40 여행길에 먹은 옥수수가 생각나서 | 일산 박나현
- 46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 세종 조주호
- 48 뿌듯합니다 | 동광주 신진영
- 50 좋은이웃이 되어가는구나 | 구미 최성선
- 52 되도록 만나뵙고 | 수영 주선희
- 55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 김해 조경옥

산모/영유아 지원

- 57 잘 전달하였습니다 | 부천 민재윤
- 61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가는 | 광명 이정원



2022 **12** 통권 136호
December

펴낸 날 2022년 9월 10일 **펴낸곳** (사)좋은벗들

만든이 이은정, 김선아, 김윤정, 진연후, 손재희, 이승웅, 이영미 **디자인** 김명희
주소 06652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42(서초동 1591-1) 정토사회문화회관 9층

전화 02-587-8996 **팩스** 02-581-4077

- 65 많이 컸지만 귀엽네요 | 남울산 한선화
- 66 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해운대 최은지

기획 2 — 제19차 온라인 통일축전 이야기

- 69 통일축전 이야기 | **스님의하루에서**
- 75 안양지회 오프라인 행사 스케치

기획 3 — 역사기행

- 79 2022년 진주역사기행 | 진주 김수녀

기획 4 — 김장담기

- 83 두북에서 부울지역 김장축제 | 동래·금정·사하·중울산·남울산 이두심
- 86 서툴지만 한마음으로 | 경주 송태교
- 87 다름을 인정한 김장어울마당 | 포항 김경화
- 88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겠다 | 노원 김미정
- 90 처음 해 봤습니다 | 부천 최옥분
- 92 나눠서 하니 재미있고 | 서대문 박춘숙
- 93 이런 게 행복이지 | 구미 최성선
- 94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 송파 최현희
- 95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며 | 달서 윤정인
- 96 친정집에 온 딸들 마냥 | 서초 허남춘

통일기도

- 97 강화통일 정진 | 인천 강종윤
- 98 후원해 주신 분들



“

기획1

좋은벗들 활동가 이야기

좋은벗들은 1993년 고구려, 발해, 독립운동유적지, 백두산 역사순례 활동을 시작으로 그동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평화통일에 초석을 다지는 활동을 꾸준히 해온 단체입니다.

올해로 활동 28년을 맞이하고 정토회의 1차 만일을 회향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좋은벗들 역사의 산 증인이며 현 좋은벗들 국장인 이승용님과 이야기 나누며 가져보았습니다.

”

기획 1

좋은벗들
활동가
이야기

좋은벗들 이승용 국장님

좋은벗들, 작은 시작에서 여론을 움직이기까지

지원국 통일담당: 반갑습니다. 처음 좋은벗들 활동은 탈북민들의 인권과 난민 문제에 집중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당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승용: 스님이 북한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는 안 믿으셨어요. 조선족 가이드가 스님을 배에 태워서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 아이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너무나 야윈 모습에 충격을 받으시고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돕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동족을 외면했구나, 누구도 안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1996년 12월에 처음 만든 게 좋은벗들입니다.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방편으로 거리 모금과 캠페인도 하



100만인서명운동

고,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북한 정보를 모으고 100만인 서명 운동을 헌신적으로 주도했던게 좋은 벗들의 초기 활동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건너오는데 강을 건너다가 죽은 시신을 중국도 북한도 국경이라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라도 가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자 하면서 무작정 짐 싸서 중국으로 떠났던 게 97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에 상주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중국 공안들에게 쫓기는 탈북자들을 데리고 살기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들에게는 장사 밑천을 지원해주기도 했지요. 한 4년 동안 물불 안 가리고 했더니 약 2만 5천 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고난의 강행군>,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는 당시에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1855명의 탈북자 인터뷰는 고난의 행군 이후 인명피해 통계자료로 추산한 최초의 북한 식량난 보고서였어요. 당시는 어디서도 그런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기에 정보기관에도 제출되고 북한 식량난이 cnn에 보도가 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각국에서 북한의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꼬리가 길어서 밟혔죠. 우리를 미행했던 중국 공안 기관에게 잡혀서 간첩 아니냐고 두 달가량 조사받고 감옥에 있다가 추방당했죠. 저희를 도왔던 조선족들은 간첩을 도운 사람들이라는 혐의를 받고 벌금을 물고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게 2001년이었습니다.

지원국 통일담당: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데요, 무슨 마음으로 그런 위험천만한 활동들을 했을까, 얘기 들어보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이승용: 스님을 믿고 따르니까, 스님이 하지는 일도 다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감옥 갈 줄 알았으면 망설였겠죠. 그런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듣고 경험을 같이 하니깐요. 그냥 한국에서 스님 말씀만 듣고는 그 정도의 동의력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지원국 통일담당: 처음 중국에 가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승용: 27살에 갔다가 31살에 쫓겨나왔죠. 처음에는 스님이 저는 인도에서 수자타 아카데미의 유치부 중등부 과정을



좋은벗들활동가 추방에 대한 항의 집회

만들라고 했고,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친구는 조선족들이 만들어놓은 절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중국에 가서 절을 지키라고 제안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바뀌버렸어요.

지원국 통일담당 : 중국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바뀌서 온 것을 살짝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이승용 : 후회라기보다는 너무 막막했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과연 누가 알기는 알까, 평생 여기서 늙어 죽는 거 아닌가, 한국에 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막하죠. 진짜 망망대해에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혼자 떠다니는 느낌, 어쨌든 뭐 그렇게 한 두 달간 지냈던 거죠.

지원국 통일담당 :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좋은벗들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이승용 : 그때부터 한국에 탈북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하나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왔던 경험이 많으니까 유수스님이 이분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법륜 스님이 하나원 원장과 의논해서 현장 학습 교육을



하나원 불국사 역사교육

하게 되어 2박 3일 동안 밥 사주고 경주 가서 불국사 석굴암 입장권 끊어주고 그렇게 교육시켰죠.

유수스님 이후 제가 2001년부터 한 4~5년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하나원을 다니면서 새터민들과 연결이 됐고, 하나원 졸업 후 여러 지역에 배정받은 사람들과 인연이 계속된 거죠. 우리 정토회 사람들이 전국에 있으니 정토회원들을 교육시켜서 자기 지역에서 좋은 이웃 되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2003년도에 좋은 이웃 되기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죠.

남북이 하나되는 대중 활동가들의 역사, 그리고 과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늘 억눌려 살다가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북한 노래도 부르고 북한 음식도 만들어 먹는 날을 만들면 좋겠다, 우리가 처음에 몇 번 하면 이게 문화가 되면 나중에는 북한 사람이 스스로 행사의 주최자가 될거다 이렇게 통일체육축전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몇 년간 아주 성황리에 잘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이걸 맡아서 할 북한 사람이나 단체가 아직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시작은 2003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국 통일담당 : 좋은벗들 홈페이지에 북한의 동향을 담은 소식지를 실으면서 북한의 소식을 국내외에 전달하는 활동도 하셨지요?



초기 좋은이웃되기 운동

이승용: 네, 하나원에 다닐 때 스님께서 다시 북한 소식지를 만들어보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하나원에서 제일 최근에 온 사람을 인터뷰하면 남들보다 빠른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원에 한 달에 한 번 가고 뉴스가 한 달 만에 나오다 보니 이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스님이 좀 더 자주 내자고 해서 4호까지 연달아 내봤는데 하나원에 가서 인터뷰하는 것만으로 뉴스가 계속 안 생기더라구요. 어느때는 제일 최근에 왔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한 1년 있다가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우리 소식지를 본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네 물가 정보 틀렸다 지금 이 가격이 안 맞다고요. 그 사람을 만나보니 북한과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몇번 대해보니 신뢰할만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주겠냐 했더니 도와주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결되어 한 달 만에 내는 소식지가 일주일 만에 나가게 되고 북한의 물가가 여러개 파악되는 거죠. 휘발유 값, 달러값, 인민폐 값 등 한 열 개 정도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걸 뉴스에 냈죠.

그러다보니 국내 경제연구 기관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데 자기들은

북한 물가의 변동을 전혀 모르는데 좋은벗들이 계속 소식을 해주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기관하고도 연결해서 계속 물가 동향을 안정적으로 내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좋은 벗들 소식지가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 거지요. 그때 이명박 정부였는데 금강산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이 나면서 대북 지원이 다 끊어졌는데 우리가 북한 뉴스레터에 북한 전염병 소식을 올리니 TV 9시 뉴스에 보도가 되고 갑자기 정부가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북한 소식지를 신속하게 내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는구나 했죠.

그러다가 2011년 즈음 북한 뉴스레터는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한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하고 실제로는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너도 나도 북한 뉴스 내보내고 북한 물가 정보 올리고 하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덩달아서 경쟁할 거 뭐 있나. 그 단체가 잘하면 하게 하고 우리는 다른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고 결론내고 뉴스레터 발행을 접었어요.

그렇게 해서 뉴스레터가 끊어지고 나서부터는 북한 소식도 우리 사업에서 떨어져 버렸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탈북자 지원 활동도 못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명박정부 들어서고는 북한이 국경을 많이 봉쇄해 버렸어요. 중국도 봉쇄하고 더 이상 계속 남한으로 건너오는 탈북자도 이전만큼 많지 않고 정체되다가 코로나 이후 줄어드는 시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업방향을 전국의



통일축전 합동차레 평화전망대에서

대중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가정 방문, 통일 체육 축전, 새터민 강사들의 통일 교육 이런 사업에 보다 주력하게 되었던 거죠.



부여 역사기행 안내

지원국 통일담당 : 네, 이야기를 듣다보니 좋은벗들은 이제 대중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새터민들을 만나고 새터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터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다, 북한에 대

해서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에는 북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었고 주력으로 해왔다면, 지금은 새터민들을 만나는 것이 주된 사업인데 새터민을 모르고 북한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사업의 의미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났는데 뭔가 축적되는 느낌이 없고 일회성으로 만나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네요.

앞으로 좋은벗들 활동에 대해서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승용 : 사실 지금은 새터민들 숫자도 줄었고 활동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이슈에서 떨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지금은 한국 사회에 와서 무난하게 정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이전만큼 중요도가 낮아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벗들 활동의 동력을 일으키고 활동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활동했던 좋은벗들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자긍심을 가지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벗들은 역사와 평화와 통일을 하나로 꿰고 통찰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는 어느 단체 못지않게 중요한 마인드를 제공하는 그런 소중한 철학을 가진 단체니까요.

지금 하는 활동에만 급급하여 새터민들을 계속 도와야 되느냐, 지원도 작는데 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만 바라보면 정착 지원 활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될거고요. 그럴수록 역사 공부를 하고 평화와 인권 의식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통일운동을 계승해 나가는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새터민들을 만나고, 스님이 했던 많은 활동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갈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터민들 활동과 더불어 좋은벗들의 활동을 계속 알리고 기억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들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국 통일담당 : 좋은벗들 활동가들이 마음에 깊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벗들의 역사를 만들고 그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좋은이웃되기

- 가정방문
- 추석명절방문
- 산모/영유아 지원

정착초기에는 첫 살림살이를 선물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으로서 정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및 시설들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같이 나누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돕고자 출산 준비물과 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일과 돌에도 축하하며 좋은이웃의 가정이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좋은이웃되기

|
가정
방문

기분전환도 할 수 있어

차보경 부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7일
- 방문대상 : 김○○님

외식하자는 말에 흔쾌히 좋아하시고 단골 식당에서 만났는데 다행히도 손님이 별로 없어 식사 후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당 그만두신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는데 수입은 줄었어도 신경 쓸 일이 없어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외식을 하려니 옷을 갖추어 입고 화장도 하고 멋을 부리는 계기가 되어 굉장한 기분 전환이 되었고, 식사하며 편안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가 되니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듣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8월 23일 / 9월 20일
- 방문대상 : 2가정(김○○님, 송○○님)
- 봉사자 : 차보경, 지정열

김○○님은 코로나에 걸려 3주간 매우 아파서 고생하시다가 그저께부터 마지막으로 아팠던 목까지 다 나오셨다며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문 때마다 점점 더 명랑해지시고 말씀을 많이 잘 나눠 주셔서 방문이 보람됩니다. 이번에 지정열님과 동행하여 사람이 늘어나니 더 즐거워하셨고 과일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코로나때문에 서로 조심하고자 먹지는 않았습니다. 선물한 비타민제는 지난번 사다 드린 것을 다 드셨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통일 축전에 꼭 참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송○○님은 퇴근이 늦고 남편과 시흥 집에서 주로 지내기에 직장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업무 강도는 약하나 급여가 적어 직장을 바꾸려고하나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대기 중인 상태인데 남편과 함께 지내서인지 안정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선물한 비타민제도 거의 드셨다며 좋아하고, 통일축전에 꼭 참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8월 23일
- 방문대상 : 3가정(류○○님, 이○○님, 황○○님)
- 봉사자 : 김순애, 김영진



이○○님은 심장이 약해서 일도 못하고 보조금으로 살고 계십니다. 나이에

비해 몸이 많이 약해보여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황○○님은 언제나처럼 밝고 편안한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애기도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류○○님은 혼자서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유튜브방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분 모두 올해 봄에 बी었을 때 보다 대체로 밝은 표정이어서 좋았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17일
- 방문대상 : 채○님
- 봉사자 : 김인화, 이현정, 최옥분

미용일을 하시는 채○님이 더 늦기 전에 미용실을 오픈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미용실을 오픈하셨다는 소식에 풍선이벤트로 오픈 축하를 해주고 싶어 풍선과 작은 화분을 준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채○님과 인사를 나누고 풍선트리를 장식하는데,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럿이 마음을 모아 완성하여, 미용실 한쪽에 두니 미용실이 환해진 듯하여 뿌듯하고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하여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풍선을 붙고 장식을 만들어 풍선트리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하며 채○님도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행복해하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12일
- 방문대상 : 김○○님
- 봉사자 : 차보경, 지정열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병실에 들어갈 수 없는 데다가 지금은 물만 드실 수 있는 상태라 1층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한고비는 넘기셨고, 수술 여부는 차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요일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다는데 40여 분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찜질팩을 선물했는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30일
- 방문대상 : 이○○님
- 봉사자 : 이정희, 정해균



직접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뵙고 건강에 좋은 여주즙과 호박즙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새터민 제주도 2박3일 여행에 가서 새로운 새터민을 알게 되어 좋은벗을 안내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주셔서 담당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레몬밤차를 주셔서 마시면서, 이○○님이 예전에는 내 꺼만 챙기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애썼는데 봉사자님들을 만나면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되어 나누는 재미가 정말 좋은 것을 알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참 적극적이고 유쾌한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 방문일 : 2022년 2022년 10월 30일
- 방문대상 : 4가정(김○화님, 김○님, 지○○네, 김○화님)
- 봉사자 : 이정희, 정해균

김○화님은 일주일동안 몸이 아프시어 누워있어 안타까웠지만 딸아이도 있어 기운을 차리려 하였고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혁이네 엄마는 6살 주○혁이가 분유지원 받아 잘 커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아이들 교육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어 보였으며 먼나라 이웃나라 전집을 드리니 감사히 받아주셨습니다.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치료 중이라 안타까웠습니다.



지○이네와 수○네도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엄마가 아파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드시고 힘내시라고 과일을 문 앞에 두고 연락하니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김장 행사를 안내해드리니 모두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아닌 꾸준한 방문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박혜진 노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17일 / 10월 5일
- 방문대상 : 3가정(은○네, 고○네, 해○네) / 2가정(은○네, 고○네)
- 봉사자 : 정순금, 박혜진

은○이 중국어시험 2등급 합격이야기부터 고○이 어머니 면허증, 해○이 방학 때 강원도 여행 등 소소한 일상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에게는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봉사활동 선배인 순금님의 각 가정상황, 새터민 정착과정 등의 이야기가 봉사활동에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새로 참여하는 혜진님이 은○이 어머니가 고민하던 EBS 방송 이용 가입 신청 등 젊은 엄마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니 같은 봉사자로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좋은 인연 함께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네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고○와 같은 나이어서 금방 어울려 놀고 고○ 어머니께서 간식도 준비해줬습니다. 고○ 어머니는 제주여행을 시작으로 운전면허 후기, 학교생활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아



이들에게 또 놀러오라고 밝은 미소로 헤어졌습니다.

은○어머니가 공부 스케줄로 늦어 만남 시간이 짧았습니다. 은○ 학습지 선행 학습 관련하여 순금님이 차분히 사교육 선행학습 문제에 공감해주시고 아이와 어머니가 스트레스 안 받는 다른 방법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12일
- 방문대상 : 2가정(해○네, 지○네)
- 봉사자 : 윤영주, 허은경

지○ 어머니가 5시가 넘어 퇴근하신다고 하셔서 늦은 시간에 방문 드렸습니다. 지○ 어머니가 가야금 전공중인 지○ 누나의 교육비와 대학진학 등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는 큰 걱정이 없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네는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방문 드렸는데, 병원에서 늦게 끝나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 다행이었습니다. 해○는 매일 치료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도 아프셔서 매일 치료받으러 다니신답니다.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저녁식사시간이라 12월 방문을 약속드리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20일
- 방문대상 : 2가정(성○/민○네, 효○네)
- 봉사자 : 이채목, 김용안

성○& 민○네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언제나 팔짝팔짝 뛰며 놀아달라고 하던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안 놀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제 어린이가 아닌란 것이죠. 둘 다 혼자 학교를 걸어서 오간다니 어머니 얼굴에 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균○는 여전히 특전사 준비로 바쁩니다. 어머니의 공안에 끌려갔던 이야기, 풀려나 떡거리를 주우러 다녔던 이야기 등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듯합니다.

효○네는 현○가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도 많이 올랐다 합니다. 동생 효○도 학원에 다니며 공부 중이라니, 자랑스러운 형제들이네요. 효○ 누나가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가 좀 편해졌고 아직도 아프지만 요즘은 열심히 먹어서 살도 붙었네요. 다행입니다.

멋진 어머니들이며 여성들인 두 분, 아무리 어려워도 당당하며 미소를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진 두 분을 만나면 감명을 받습니다. 좋은벗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벗임에 틀림없습니다.

좋은 이웃 되기

가 정
방 문

낮설었지만 좋았던

윤영섭 화성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6일
- 방문대상 : 김○○님
- 봉사자 : 윤영섭, 최효준, 조민경

7월에 병원 입원으로 뵈지 못해 궁금한 마음에 찾아 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살이 많이 빠지신 모습에 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치료받으시고 식사도 잘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아파보니 걱정해주고 찾아주는 좋은 벗들이 고맙다고 하십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목소리 높이며 이야기하시는 김○일님의 건강한 모습을 기원합니다.

- 방문일 : 2022년 8월 30일
- 방문대상 : 김○○님
- 봉사자 : 안봉진, 윤영섭, 조민경



평택 좋은벗분들이 많이 찾는 일심이네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운

영하시는 이복식당인데, 늦은 점심 시간임에도 북에서 온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설 방문 때 초등학생 아이와 두살배기 꼬마가 식당 한켠에서 놀던 모습이 생각나서 아이들 학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뭘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는 좋아하시네요.



손님들과 고향 이야기며, 음식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피를 나눈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아기 엄마가 좋은벗들 방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야기 나누고 봉사자 전화번호를 드리고 왔습니다.

좋은벗분들께 고향의 음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1월 5일
- 방문대상 : 4가정(김○○님, 최○○님, 이○○님, 이○○님)
- 봉사자 : 윤영섭, 황주영, 조민경, 배해정

환하게 맞아주신 김○○님. 항암 치료제도 적응이 되셔서 부작용도 줄고, 효과도 보인다고 하



습니다. 부작용으로 식사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여러 사람들과 먹으니 활기가 생긴다고 하십니다. 좋은벗에서 다녀가면 며칠간 마음이 편안하고 언제 올지 기다려진다는 말씀에 감사하고 몽클합니다.



유치원 쌤~ 최○○님, 코로나를 2번이나 겪으시고 요즘은 좀 나아지셨답니다. 꼬맹이들과 보내는 일상에 깔깔~ 웃으니 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다문화 가정, 고려인 가정 아이들이 유치원에 많다는 이야기에 고려인들 생활을 나누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고려인 가정 아이를 추천해 주셔서 JTS에 추천해보려 합니다.



피꼬리 이○○님, 지난 통일축전에 멋들어진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다음엔 장기자랑 참여를 권유 드렸습니다. 북에서 한 동네 살던 지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함께 뵈고 왔습니다.

이○○님, 작년에 정착하신 분입니다. 정착 초기 지원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 주 신규 방문 드리겠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1월 10일
- 방문대상 : 이○○님
- 봉사자 : 노정숙, 조민경

평 양에서 사셔서 인지 사투리도 부드럽고, 방문을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모습이 마음에 남습니다. 따님 사진을 보여주시며 자랑도 하셨어요. 40대 또래끼리 만나서인지 화제불문!

음식부터 연애사에 이르기까지~ 고교 동창을 만난 느낌입니다. 구직 중인데, 남한에 잘 정착하실 것 같습니다. 이○성님을 응원합니다.



좋은 이웃되기

가 정
방 문

마음이 짠했습니다

김태윤 일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30일 / 9월 20일 / 10월 25일 / 11월 22일
- 방문대상 : 2가정(민○○님, 백○○님)
- 봉사자 : 이경은, 김태윤

김○○님은 얼굴이 핏색해 보여 물었다더니 3일동안 감기로 좀 힘들었다고, 지금은 괜찮다며 밝은 얼굴로 맞아 주셨습니다. 10월에 있을 통일축전 안내를 드리니 어렸을 때 북한에서 살던 때를 두런두런 말씀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었고 김○희님께 고향에 편지 쓰는 걸 권해드렸더니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만 북에 있는데 30년전에 소식 끊겼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어 통일축전을 보기만 하겠다고 하시니 그것 또한 좋았습니다.

백○○님은 북에서 나와 중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피아노를 배우셨다고 지금도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기자랑에 나가



시라 권했더니 실력이 안된다 사양하셔서 듣고 싶다 말씀드리니 흔쾌히 찬송가 한 곡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내년엔 장기자랑에 나가시라며 응원을 보내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분 다 북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두분 모두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분을 만난지 몇 해가 되다 보니 편한 이웃사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희님은 뇌혈관질환으로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시는데 큰 이상은 없이



약만 받아오신다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은 친구가 아파서 병간호해주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시며 통일축전을 조금밖에 볼 수 없어 아쉬웠고 내년

에는 꼭 보시겠다며 환한 웃음을 주셨습니다.

백○○님은 30년만에 그 긴 머리를 자르셨다며 오랜만에 친구 만난듯 즐겁게 얘길 나누셨습니다. 짬짬이 시간아르바이트도 하신다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소일거리라도 하는게 좋으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좋은 이웃 되기

가 정
방 문

참 반가웠습니다

신정화 안양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17일
- 방문대상 : 박○○님
- 봉사자 : 유현주, 신정화

좋은벗들 봉사를 시작하고 이번 방문하는 가정이 세 번째인데 참 반가웠습니다. 박○○님께서도 오랜만의 방문이라며 반겨 주십니다. 북쪽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부딪쳐 다리뼈가 부러진 얘기에 가슴 아팠습니다. 돈을 못벌어서 죄책감과, 방치된 다리뼈가 잘못 붙어 장애인으로 더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남한에 와서 수술해 지금은 다리가 일자로 났다며 오길 잘했다고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평소 말씀을 잘 안하시는 분이 오늘은 맘에 둔 얘기를 다 하신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교회에서 온종일 지내 통일축전 참석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다리가 건강하지 않아 일도 없이 그나마 일요일은 하루종일 교회에 가서 지내신다니 좋았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하실테니까요. 겨울 오기전 김장철 때 다시 뵙기로 인사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좋은 이웃 되기

가 정
방 문

상품권을 전하는 영광

이정원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0월 13일
- 방문대상 : 채○○님
- 봉사자 : 김명신, 이정원

채○○님 댁에 갔는데 마침 김○○님도 쉬는 날이라 함께 계시어서 추석 때 코로나로 못 보았던 아쉬움도 털고 너무 반갑게 보였습니다. 두 분 일하며 살아가시는 이야기들 듣다 보니 긍정의 에너지로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채○○님께 통일축전 3등 상품권을 전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들고가긴 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는 마음이 아쉽다고 김명신님께서 음료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챙기느라 늘 수고 많으신 마음 참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13일
- 방문대상 : 백○○님
- 봉사자 : 이정원

딸아이가 요즘은 자전거를 타서, 킥보드를 중고로 나눔 할까 싶던 중에 백○○님이 받겠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면 늘 차를 내어 주십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와 함께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 얼마 전 급한 일이 있어서 잘 타지 않는 택시를 탔다가 기사분이 탈북민을 편견으로 대하고 안좋은 소리를 해서 언쟁을 했다고 하십니다. 많이 속상했다며 힘빠진 모습에 마음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 남북의 대치가 엮여 있고 좌우 편견이 심한 곳에서 이분들이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좀 답답했습니다. 응원드리는 마음 두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문밖에서 배웅해주시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15일
- 방문대상 : 조○○님
- 봉사자 : 이정원



직장이 있는 수원에서 생활하는 조순○님을 1년만에 보았습니다. 추석 때 수원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계속 만날 날을 보던 중, 순○님께서 집 청소도 할 겸 시흥으로 오시게 되어 반갑게 보았습니다. 중국에

두고 온 두 딸에 대한 그리움이 크십니다. 중국은 지금도 코로나 방역이 철저해서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내내 일하고 쉬는 날은 잠 자기 바쁘다는 순○님 말씀이 공감도 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밝고 씩씩하게 지내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원이든 시흥이든 또 반갑게 뵈 날을 기다립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22일
- 방문대상 : 최○님
- 봉사자 : 이정원

최○님 생일정보가 카톡에 보여서 전화를 드리고 잠시나마 찾아 뵈었습니다. 딸 민주와, 민주 친구가 집에 와있었습니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촛불도 불고, 한국에 와서 혼자 딸아이 키우며 건강히 지내심에 수고와 감사의 마음 전했습니다. 축쓰러움에 묵묵히 계시다가, 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나중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1월 3일
- 방문대상 : 이○님
- 봉사자 : 이정원, 정희숙

지난 달은 이○님이 아르바이트하느라 시간이 맞지않아 물품만 전달하고 와서 아쉬움에 이번에는 좀 마주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이 있으셔서 잠시 앉아 얘기하다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자란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에 놀라면서도 서로 의지할 지인이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늘 씩씩하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님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식사를 사주겠다는 말씀이 말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좋은 이웃되기

가 정
방 문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정세은 창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0월 13일
- 방문대상 : 2가정(박○○님, 박○○님)

박○○님은 대학생 아들 둘을 혼자 키우는 씩씩한 엄마입니다. 법륜스님 법문도 잘 듣고 계시다며 긍정 에너지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박○○님은 앞니가 빠졌는데도 통일축전 장기자랑에서 노래를 열심히 불러 주셨습니다. 농사일로 당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따로 찾아 만났습니다.

두 분을 보며 늘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좋은 이웃되기

가 정
방 문

고려인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월광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0월 17일

지난 5월말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뇌졸중으로 쓰러져 고대안산병원을 거쳐 안산 조은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비올레따님은 어린 아이들 세 명을 카자흐스탄에 두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병원비가 13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좋은벗들과 행복학교, 정토회, JTS 자원활동가들이 정성을 모아 우선 300만원을 입금하고 남은 병원비는 매월 50만원씩 갚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천 적십자 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비올레따님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산딸기잼을 ‘맛있어요’ 라며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기뻐합니다. 비올레따님 어머니와 아프신 모든 분들 속히 쾌차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도 참 고맙습니다.



좋은 이웃되기

가 정
방 문

잘 써주세요

한선화 남울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1월 22일
- 방문대상 : 유○○님
- 봉사자 : 한선화

두 북수련원 살리고센터에서 본체, 모니터, 부품을 지원받고 본체포맷 및 스피커를 구입하여 컴퓨터를 유○○님택에 제공하였습니다.



유○○님은 첫째 호응이와 둘째 호영이 두아이의 엄마이고, 지난 12일 김장축제와 나비장터 날에 참석했던 분으로 2016년에 울산으로 남편과 함께 정착해 밥상세트도 지원했던 가정입니다.

유○○님은 차가 있어 직접 가지고 가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맙고 잘 쓰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이웃되기

추 석 명 절 방 문
서 울 제 주

오랜만에 통화하고

허남춘 서초 좋은벗들

- 일시 : 2022년 9월 4일 ~ 8일
- 방문대상 : 6가정
- 봉사자 : 송민숙 신영순 이정주 장혜진 허남춘



좋은벗들과 처음 만난다는 호기심으로 따라 나섰는데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에 놀랐고, 따뜻한 빵을 만들어 대접하는 걸 보면서 한없이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에게 잠시나마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기쁘고, 덕분에 예전에 다녔던 좋은벗분과 오랜만에 통화하며 안부를 확인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시고 고맙다고 하시며 말씀도 여러가지 잘 해 주셔서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픈 몸인데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것에 많이 배웠습니다.

황재영 용인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8일
- 방문대상 : 6가정
- 봉사자 : 6명



좋은 이웃 되기

추석명절방문
강원경기

에코백 반응이 좋아요

조민경 화성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2일~5일
- 방문대상 : 24가정
- 봉사자 : 20명(선물포장 8명, 방문 12명)

환경팀 에코백 호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에코백 제작과 지원해주신 봉사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일상방문 후 좋은 벗들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반가이 맞아 주시고 나누는 이야기가 풍부하고 깊어집니다.

방문 참여 회차를 거듭하며 선입견 없이 편안하고 좋은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권인숙 수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4일
- 방문대상 : 32가정
- 봉사자 : 27명(박진현, 유성희, 김규림, 김영기, 공경옥, 한은희, 이진수, 김지영, 정미주, 김재호, 이두경, 서미숙, 장진용, 황서윤, 최인숙, 권윤희, 손연정, 김민정, 유소분, 민찬희, 김효정, 이서후, 권인숙, 이명선, 고미영, 박정옥, 목순수)



황재영 용인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12일, 15일
- 방문대상 : 3가정
- 봉사자 : 황재영, 김윤미



여행길에 먹은 옥수수가 생각나서

박나현 일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2일
- 방문대상 : 2가정
- 봉사자 : 김해원, 이미형



방문이 처음인 이미형님과 함께 현경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학원에 가고 대길이가 엄마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행길에 먹은 옥수수가 정말 맛있었던 생각이 나서 미형님이 농사지은 옥수수를 삶아 가져오게 되었다고 내어놓으니깐 현경이 엄마가 북에서 먹던 옥수수 맛과 과일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은 과일을 안먹다가 이제는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밝은 표정의 현경이 엄마를 만나고 나오면 우리도 마음이 환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민준이 엄마는 3시에 일을 마친다고 하여 민준이가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가 셋이 옥수수를 먹고 있다가 일 마치고 온 민준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점심을 아직 못 먹었다고 옥수수를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민준이 엄마가 생글 생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민준이 아빠가 중국에 있을 때 공안에게 잡히는 것이 두려워 술로 지내던 버릇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술이 없으면 잠을 못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엄마 소개로 며칠 후부터는 현경이 엄마도 식당일을 하게 되어있

어 두 가정이 모두 이번 통일축전 행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열심히 일하는 엄마들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와서 민형님과 늦은시간까지 차담을 하면서 오늘 옥수수가 준 고마움도 나누기하였습니다.

유현주 안양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3일
- 방문대상 : 2가정(김○○님, 박○○님)
- 봉사자 : 27명(박진현, 유현주)



- 방문일 : 2022년 9월 4일
- 방문대상 : 2가정(이○○님, 강○○님)
- 봉사자 : 유현주, 신정화



- 방문일 : 2022년 9월 4일
- 방문대상 : 2가정(주○○님, 안○○님)
- 봉사자 : 이예슬, 김인희



- 방문일 : 2022년 9월 4일
- 방문대상 : 문○○님
- 봉사자 : 박영희, 김정희



- 방문일 : 2022년 9월 4일~5일
- 방문대상 : 3가정(하○○님, 김○○님, 손○○님)
- 봉사자 : 김복선, 정선숙



- 방문일 : 2022년 9월 3일
- 방문대상 : 현○네
- 봉사자 : 김성아, 박나현



최옥분 부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3일 / 4일
- 방문대상 : 3가정 / 1가정
- 봉사자 : 김미래, 최옥분, 이정희, 정해균 / 차보경, 지정열

- 방문일 : 2022년 9월 2일
- 방문대상 : 2가정(현○○님, 최○○님)
- 봉사자 : 김현숙



이정원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9일
- 방문대상 : 2가정
- 봉사자 : 심영은, 황윤숙



- 방문일 : 2022년 9월 1일 / 2일
- 방문대상 : 용석이네 / 2가정(김○○님, 김○○님)
- 봉사자 : 박용석



- 방문일 : 2022년 9월 7일
- 방문대상 : 김○○님
- 봉사자 : 임진미, 김명주

- 방문일 : 2022년 9월 3일 ~ 9일
- 방문대상 : 8가정
- 봉사자 : 이정원



- 방문일 : 2022년 9월 9일
- 방문대상 : 4가정(김○○님, 지민이네, 준혁이네, 쌍둥이네)
- 봉사자 : 손은순, 민재윤



- 방문일 : 2022년 9월 6일
- 방문대상 : 이○○님
- 봉사자 : 이정원, 정희숙



- 방문일 : 2022년 9월 9일
- 방문대상 : 박○○님
- 봉사자 : 김현숙



- 방문일 : 2022년 9월 4일
- 방문대상 : 5가정
- 봉사자 : 서태원, 이휘영



- 방문일 : 2022년 9월 5일
- 방문대상 : 3가정
- 봉사자 : 이휘영



- 방문일 : 2022년 9월 9일
- 방문대상 : 3가정
- 봉사자 : 서태원, 서방자



- 방문일 : 2022년 9월 8일
- 방문대상 : 송○○님
- 봉사자 : 김명신, 이정원, 이명은

- 방문일 : 2022년 9월 8일
- 방문대상 : 백○○님
- 봉사자 : 이정원, 이명은



- 방문일 : 2022년 9월 3일
- 방문대상 : 6가정
- 봉사자 : 신미순



- 방문일 : 2022년 9월 7일~11일
- 방문대상 : 4가정
- 봉사자 : 김명신



- 방문일 : 2022년 9월 4일
- 방문대상 : 5가정
- 봉사자 : 김병선, 김명임, 김이자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추석명절방문
대전총청

조주호 세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1일/2일
- 방문대상 : 7가정
- 봉사자 : 박미란, 이월희, 차봉석, 최원선, 조주호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선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적극성과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는 모성애가 든든하게 여겨졌습니다.

코로나를 앓았고 허리가 아파 매일 병원에 다니신다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편안해보여 다행스러웠습니다.

아이들과 불편함없이 잘 살고 있다는 옛된 엄마의 밝은 표정을 보며 낯선 곳에서 자리잡고 잘 살아가고 있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혼자 살았던 분이 가족이 생기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지낸다며



아주 흡족해 하는 모습에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예쁘게 화장하시고 우리를 맞이해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참 예쁘게 느껴진 날, 잘살고 계셔서 감사하고 작은 선물도 소중히 받아주셔서 행복했습니다.



통일축전에 여섯 분이 참석하겠다고 얘기하셨고, Zoom 설치 확인하였습니다. 한 분은 장기자랑 참여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최복규 청주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29일 ~ 9월 6일
- 방문대상 : 11가정
- 봉사자 : 9명



윤정숙 충주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2일~21일
- 방문대상 : 8가정
- 봉사자 : 윤정숙, 조상인, 채수현, 허진석, 채명희, 김문숙, 장순민, 김혜영



좋은 이웃 되기

뿌듯합니다

추석명절방문
광주전라

신진영 동광주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7일
- 방문대상 : 3가정
- 봉사자 : 강인경, 서지우

연○님이 일하는 식당으로 가서 추석꾸러미 전달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설에 봤을 때보다 표정도 더 밝았고 힘든 일 없냐고 물으니 살기 좋다하시네요.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민○님은 표고버섯과 오이를 재배하며 생활하십니다.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밝으시고,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통일 축전을 안내하니 줌미팅으로 하는 건 익숙해서 잘 할 수 있다시며 참여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경선 서광주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26일 ~ 27일
- 방문대상 : 50가정
- 봉사자 : 강미란, 김영숙, 박현경, 양선희, 양은재, 여정화, 임현수, 이경선, 허지행



좋은 이웃 되기

추석명절방문
대구 경북

좋은이웃이 되어가는구나

최정선 구미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31일 ~ 9월 8일
- 방문대상 : 52가정
- 봉사자 : 권애경, 권정아, 김경숙, 김수미, 김인숙, 김호순, 문규란, 박수경, 박정순, 류양희, 우치구, 이병정, 이해은, 임명화, 조수미, 최화심, 정남숙, 전현숙, 최성선

좋은벗분들을 만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일상을 나누고 오니 좋은이웃이 되어가는구나를 느끼게 되어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좋은벗분들의 명절을 생각하니 마음이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 만나고 이야기해보니 그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통일은 안되어도 교류가 있어 고향이라도 가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추석에는 좋은벗분들과 함께한다는 분도, 홀로 쓸쓸하게 보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 여기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입니다.

따님이 탈북하다 잡혀서 복송되었다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울컥했는데 저분의 속은 다 타서 재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받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도 안찍고 싶어하시고 경계심과 상처가 있으신 분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시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통일축전에 참가해주시길 안내를 드렸고, 김장 담글 때도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심교 동대구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6일
- 방문대상 : 25가정
- 봉사자 : 권명순, 박규리, 이심교



되도록 만나 뵙고

추석명절방문
부산울산

주선희 수영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7일~8일
- 방문대상 : 22가정
- 봉사자 : 주선희, 김정숙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되도록 만나 뵙고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촌지역 좋은벗분들의 사랑방인 오○○님은 매번 방문때마다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 맞아 주십니다. 이번에는 감자전분으로 만든 옹똥북한식 감자만두를 주셔서 아주 맛있게 ~그리고 한국에 처음 와서 많은 분들의 도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북한이탈주민자원봉사협의회에서 명절과 어버이날 북한음식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에 기회가 있으면 정토회 노보살님들에게 북한음식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변○○님은 현재 대학에서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친 상태라고 말씀하시면서 북한의 아들과 만날 희망이 안보이고 전쟁이후 제2의 이산가족으로서 슬픔과 쓸쓸한 마음이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는 좋은벗들에게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다고 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이○○님택 설방문 때 코로나 후유증과 알코올성 치매인 남편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분은 주간보호센터에, 아들은 뒤늦게 학교에 다닌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윤정 남울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25일 ~ 27일
- 방문대상 : 26가정
- 봉사자 : 한선화, 임순화, 하미지, 하정민, 권윤정

최은지 해운대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30일 ~ 9월 1일
- 방문대상 : 29가정
- 봉사자 : 김영미, 최은지, 김무진



김선수 금정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2일/3일
- 방문대상 : 21가정
- 봉사자 : 최윤숙, 김근숙, 윤우근, 김미정, 김선수



강정희 동래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2일
- 방문대상 : 20가정
- 봉사자 : 신경미, 강정희, 이수정



정정숙 중울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30일
- 방문대상 : 36가정
- 봉사자 : 임분옥, 유은희, 백재선, 심지윤, 정정숙



김진태 사하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9일
- 방문대상 : 27가정
- 봉사자 : 김민혁, 김재선, 김진태, 김형석, 박세윤, 박소정, 최미금, 최은영, 황시우



좋은 이웃 되기

추석명절방문
경 남 지 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경옥 김해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1일, 4일
- 방문대상 : 8가정
- 봉사자 : 송경아, 한순화, 한춘화, 김지아, 오성환, 김미자, 이삼순, 조경옥



방문 가정이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어서 얘기 중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축전에서만 뵈던 분들을 가정에 방문하여 얘기 나누다 보니 친근감이 느껴졌고 표정도 밝아 좋았습니다. 장기자랑에 참여를 권할 때, 북에 있는 가족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걱정되어 화면 노출을 꺼려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으나 낯선 땅에서 자리잡고 잘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또 주기적인 모임으로 서로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축전 안내하니 얼굴 보며 모여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애잔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반가워하는 그 마음 잘 받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옥 창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2일 ~ 8일
- 방문대상 : 72가정
- 봉사자 : 13명



서동욱 진주·사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3일, 12일
- 방문대상 : 56가정
- 봉사자 : 이영직, 김나은, 정경희, 김경원, 김희영, 백정자, 신인영, 손경미, 손재희, 백은영, 서동욱



좋은이웃되기

산 모
영유아
지 원

잘 전달하였습니다

민재윤 부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7월 29일
- 방문대상 : 2가구(임○○님, 김○○님)
- 봉사자 : 윤경원, 임진미

민○○님이 전화를 받지않아 걱정하며 갔었는데 주무시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하셔서 다행히 물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라 누나가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누나방을 예쁘게 꾸며주어 흐뭇한 마음이었고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 안심되었고 아기 엄마가 아기 데리고 지방까지 친구 만나러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8월초 백일이 곧 다가와 분유지원을 원하셔서 분유지원 예정입니다.



김○○님이 어깨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여 걱정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라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집에 함께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 생활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통일활동가 교육 내

용을 새기고 단순히 물품전달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먼 친척이 이웃집에 방문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김○○님이 기존에 먹이던 제품과 달라 교환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김○○님이 무료로 지원해주는데 제품이 다르다는 말씀하기 미안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8월 22일
- 방문대상 : 김○○님 / 임○○님
- 봉사자 : 김명주, 임진미 / 윤경원, 임진미



채원이가 방문시간 즈음 금방 잠들어 아쉬웠는데 중간에 깨서 노는 모습 보니 반가웠습니다. 채원이가 이제 7개월 접어드니 얼굴도 많이 바뀌고 활발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김○○님이 자동차 수리하러 나갔다 오셔서 이야기는 길게 못 나눠 아쉬웠습니다. 분유지원 6회가 모두 끝나 일상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엄마도 건강하고 태현아가도 하루가 다르게 쑥 쑥 자라는 게 보여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일지원과 분유지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풍족하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태현이 누나가 학원에 가고 없어서 아쉬웠지만, 임○○님이 아이들과 밝게 지내고 있고 국가 지원도 알아서 잘 받고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9월 29일
- 방문대상 : 임○○님
- 봉사자 : 윤경원, 임진미

추석 때 친척이 없어 그냥 집에서 아이들과 보냈다 합니다. 아이들 이름을 바꾸셔서 개명 신청까지 마쳤다 하는데 자식들이 좀더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 마음이 느껴져 잔했습니다.



임○○님도 살이 많이 빠지신 모습이었는데 아기가 커 감에 따라 신경쓸게 많아 힘들어하시네요.

처음으로 북한이야기도 하시고 가족들도 보고싶다고 이야기해주어 다음에는 바쁘더라도 꼭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18일 / 11월 17일
- 방문대상 : 황○○님
- 봉사자 : 김영진, 김순애 / 김순애, 이정희

아가의 첫돌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웃 3분이 오셨습니다. 황○○님이 북한식 국수와 나물들로 축하 음식상을 차려 함께 나눠 먹으며 아가의 첫돌을 축하했습니다. 백일때부터 한달에 한 번씩 봐와서인지 아가도 낮가림없이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네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가 희망의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축하해주려고 오신 이웃들의 고향이 야기, 이곳에 경제활동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로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안정된 정서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 아기도 순하고 발달단계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쑥쑥 잘 자

라며, 말하려고 웅얼웅얼 소리를 냅니다. 이번이 마지막 분유지원입니다. 좋은벗들의 활동과 지원에 고마운 인사를 빠뜨리지 않고 해주시네요. 주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날입니다.

좋은이웃되기

산 모
영유아
지 원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가는

이정원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7월 29일
- 방문대상 : 송○○님
- 봉사자 : 이명은



6월엔 민준이가 아파 송○○님을 못뵈고 7월어야 만나 뵈었네요. 조금은 더 까칠해

진 민준이~ 엄마랑 둘이서만 집에 있었다 하네요. 큰눈의 민준이는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갑니다. 송○○님은 아이와 씨름하느라 많이 힘들고 외로워했습니다. 조금 더 찾아뵈어야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이 더욱 살기 힘들어 한다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8월 18일
- 방문대상 : 김○○님
- 봉사자 : 이정원, 김명신



반갑게 맞아주시는 0연님과, 감기에 걸려도 보챌없이 편안하게 있는 순

동이 유성이를 잠시나마 보고 올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 의지하여 아이도 잘 키우고 여유를 찾아가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결 밝아지고 여유있어진 ○연님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유성이를 편안하고 여유있게 키우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흐뭇하기까지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시고 장현에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안되었답니다. 내년에는 잘 되어서 첫째 유정이 방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8월 25일
- 방문대상 : 이○○님
- 봉사자 : 이정원, 정희숙



이○○님댁에 다녀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경○님과 함께 소소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평소 경○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이 방문하여,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알게 된 고향 지인이라며 이곳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정원님과 저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정원님이 정토회에서 하는 좋은벗들을 소개해주고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정희숙님께서 김치반찬을 자주 챙겨주셔서 아이들이 많아 늘 반찬걱정인 이○

○님께서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 방문일 : 2022년 9월 11일 / 10월14일
- 방문대상 : 김○○님
- 봉사자 : 김명신



김○○님이 분유가 하루치만 남았다고 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유성이가 어린이집 다니며 컨디션이 안좋아 이유식을 못하고 분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꿀만 가지고 방문 드리고, 분유는 다음 날 받을 수 있게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유성이 아버님이 계셔서 얘기는 많이 못했지만 남편이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왕래하다가 함께 잘 지내셔서 좀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분유 감사하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추석연휴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만큼 어른이 늙는다면 큰일이 겠죠 ㅎㅎ. 벌써 유성이가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방문 드렸을 때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유성이 심장 이상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유성이 아빠하고 화해하고 부부가 함께 지내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님 얼굴이 밝고 건강하고 안정적



으로 보입니다. 이유식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늦은 시간에 방문을 드렸습니다. 늦은 방문 덕분에 오랜만에 유정이 얼굴도 보고 온 가족이 하하호호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아갈 가족들의 모습을 응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0월 6일
- 방문대상 : 이○○님
- 봉사자 : 정희숙

이번에는 좀 늦게 다녀왔습니다. 이○○님께서 아르바이트를 다니고있어 늦게 퇴근해서 시간이 안맞아 차일피일 미뤄지다 잠깐 퇴근시간에 맞춰 분유만 전달하고 왔습니다.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아르바이트 다니는 모습을 보며 참 언제나 씩씩하고 열심히 지내는 것 같아 좋습니다. 분유전달하고 나오는데 포도즙을 지인한테 받았는데 많다며 나눠 주어서 감사하게 받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일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이웃 되기

산 모
영유아
지원

많이 컸지만 귀엽네요

한선화 남울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9월 1일
- 방문대상 : 김○○님
- 봉사자 : 임순화, 한선화

부산 해운대법당에서 인연 맺어오다 결혼하면서 울산으로 이적된 김○○님입니다. 결혼지원부터 울산에서 해서 출산지원, 백일지원에 돌까지 지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린이집에서 일하더니 임신으로 쉬다가 올해 6월부터 다시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리고 함께 출근하고 있다 합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딸과 함께 있고 하니 다른 아이에게도 잘 하리라 믿어 격려하며 나왔습니다. 돌잔치 날이 9월 1일이라 돌사진은 아직 없습니다.

아기 때 보고 다시보니 많이 커서 참 귀엽네요.



좋은 이웃 되기

산 모
영유아
지 원

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최은지 해운대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0월 19일 / 11월 23일
- 방문대상 : 김○○님
- 봉사자 : 김영미, 최은지

통일축전 참가상 상품권을 증정하러 가서 출산이야기와 어려운 집안사정이
야기를 듣고 급하게 출산과 분유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일이라
서툴기도 하였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남한은 살기 좋고 더구나 좋은벗들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식 감자지짐, 설탕 뿌린 토마토 등 한
상 가득 준비해 주셔서 너무 맛나게 먹었고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아기를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은 아기가 자고 있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 육아 이야기 등을 나누며 공감하
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갈때마다 정성스럽게 과일,
빵 등을 주십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몇번이나 해
주시는지. 제가 더 많이 감사하고 여러가지
로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달에 또 뵈요~🍀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행복도 배울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내가 행복하면
세상은 언제나
좋은 세상!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수시접수 **1800-9869**

법륜스님 온라인 행복학교

● 접 수

수시접수

● 수업방법

화, 목 오전 10시/저녁 8시 중 택 1
(주1회 수업)

● 수업과정

오리엔테이션 + 마음편 4강

● 참가비

1만 원(온라인 소그룹 진행)

“

기획 2

제19차 온라인 통일축전 이야기

매년 10월이면 남녘, 북녘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축전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즐거운 장기자랑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3년째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 2

통일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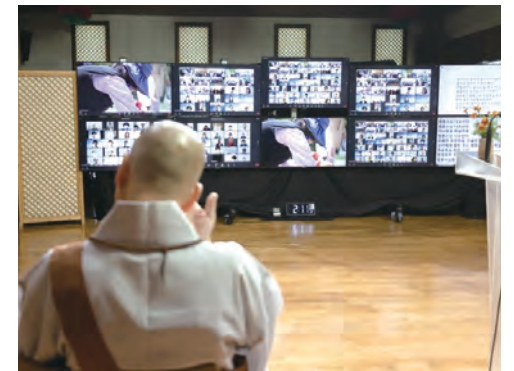
통일축전 이야기

스님의 하루팁

먼저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북녘 동포들을 대신해서 좋은벗들 활동가들이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온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북녘 동포들도 온라인으로나마 고향을 향해 차례를 올렸습니다. 영상 속 내레이션에서는 좋은벗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글을 낭독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스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날이 서늘해지고 잎이 떨어지니 쓸쓸한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가을 추석이 되면 더 고향이 그리워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 중에 한국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뿌리를 잘 못 내리고 방황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경상도에 있다가 전라도로 가거나, 전라도에 있다가 경상도로 가거나. 나라 안에서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국제적인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달라서 고생을 많이 하죠. 남한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유럽에도 갔어요. 거기 가서 인종적으로도 차별받고, 말이 안 되니까 차별받고, 그래서 처음에 이민을 간 사람들은 접시도 닦고 주로 허드렛일을 하며 정착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탁소도 운영하고, 채소가게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점점 고된 노동에서 안정적인 자영업으로 옮겨갔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자녀들은 미국 사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제는 이민자 취급을 받기보다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데까지는 적어도 5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민족이고 말이 같긴 하지만 북쪽에서 살다가 남쪽에 오면 가치관, 문화, 언어가 달라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또 본인의 아니게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정착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시죠? 방금 영상에서 편지글을 읽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그 한 술의 밥, 한국에 와서 보면 그 흔해 빠진 한 술의 밥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죽은 사람은 죽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은 남더라도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은 일단 여기에 먼저 정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슬피한다고 북쪽에 계시는 가족들의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나부터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야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쪽에 인도적 지원도 하고 난민도 돕고 하면서 북쪽 소식을 잘 듣는 편이었는데,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소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울봄 가뭄이 심하고 또 태풍 피해도 있어서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 때처럼 일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도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같은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마땅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경이 봉쇄되어 있어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국경이 봉쇄되고 나서는 조미료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수입 물품만 2배, 3배 때로는 5배까지 물가가 뛰었지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을 넘어가면서 쌀값도 6천 원에 근접하고 있고요. 옥수수 값도 3천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장 가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한 출신인데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족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속히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안 이뤄지더라도 혹시 조중 국경이 열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9월 26일부터 단동 신의주간 열차가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직 물자만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너무 아픈 얘기만 하면 우리가 우울해지잖아요. 오늘은 고향이 그리운 하지만 고향 생각을 잠시 잊고 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장기자랑을 함께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훌훌 날려버리고 흥겨운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좋은벗들이 촬영해서 보내준 수십 편의 장기자랑 영상이 좋은벗들에 도착했습니다. 불꽃 튀는 예선을 거쳐 총 11편이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현장 심사와 유튜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좋은벗들의 장기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지회별 인사와 함께 좋은벗들의 다양한 장가자랑이 펼쳐졌습니다. 화상 회의 방에 입장한 방청객들의 응원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11명의 장기자랑을 마치고 다시 스님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좋은벗들은 힘찬 박수로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이 환한 웃음과 함께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기자랑을 잘 봤습니다. 곳곳에 모여서 함께 춤추는 모

습도 잘 봤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향을 잊고 내가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깨어 있어서 마음을 가볍고 즐겁게 가지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명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중 한 명은 통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이고요.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륜스님에게 궁금한 점은 스님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요. 통일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일단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만 안 일어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지금은 남한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남한이 입을 피해가 훨씬 더 큼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역 적자가 나고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올라서 세계 경쟁에서 약간 뒤처질 위험이 있는데, 이때 만약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라도 나면 누가 이기고 지는 건 고사하고 환율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산업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에서 남한이 낙오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이유론든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 지금은 기회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기회가 없을 때는 남한 사회 정착에 더 신경을 쓰고, 기회가 생기면 가족들도 신경 쓰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일부 미래 학자들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통일이 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합산하여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좋은벗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통일축전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

기획 2

통일축전
행사스케치

안양지회 오프라인 행사스케치

- **언제** : 10월 2일 (일) 오후2시~4시
- **어디서** : 김○○님
- **진행방식** : 스크린에 노트북 연결하여 줌으로 참석
- **참석인원** : 23명(윗동네 13명, 아랫동네 10명)

봄 나들이에 이어 가을 통일축전도 지역에서 소규모로 서로 얼굴 보며 진행해 보자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봉사자 김정희님이 본인 자택 1층을 기쁜 마음으로 내주었습니다. 장소가 결정되고 추석명절 방문을 겸한 통축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참석해야조 하시는 윤주 엄마와 진희 민호 엄마, 출산 예정일이 10월 24일인 만삭의 하윤 엄마도 환하게 웃으며 참석할 거예요 하십니다. 일요일이지만 근무하시는 분, 교회에 가시는 분, 필라테스 강사 준비로 학원에 가시는 분, 우울증으로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벗 분들이 모여 살다보니 서로 왕래하며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안면만 있는 분들은 모이기를 주저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예님은 당일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며 긴장으로 떨려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걱정을 합니다. 70년 헤어져 산 세월은 5천 년 함께 살아온 시간에 비해 별거 아니니 서로 용서하고 다 잊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가사를 듣고 있으니 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신바람나게 응원하였건만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한번만이라도 꼭 안아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후회의 눈물과 어머니 생신상 한 번 차려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박○희님의 고향에 보내는 편지는 모두를 울렸습니다. 중국에서 돈 벌어 함께 살자며 두만강가에서 이별할 때 애써 참았던 눈물을 보이시고 손저으시던 어머니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만날 수 있기를 모두가 염원해봅니다.



고향에 편지 쓰기를 해주신 박○희님과 장기자랑으로 피꼬리 목소리를 뽐내주신 김○예님과 함께 해주신 윷동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둘러 앉아 오늘 함께하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각자 느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찍 와서 한반도기를 만든 어린 친구들은 재미있게 잘 놀았다며 더 놀고 싶다고 하고, 나이는 다르지만 친구가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나누기에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반면 가만히 앉아 참여하니 즐겼다면 밖에서 좀 더 신나게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에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보았습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 진짜 잔치를 여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뜻 장소를 제공해 준 김정희 봉사자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제19회 통축을 마무리합니다.🌻

고향에 보내는 편지

박○희

그리운 고향에 계시는 꿈결에도 보고싶은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에게



중국에서 돈 벌어 함께 모여 살자던 약속을 남기고 두만강을 건너 지도 어느덧 20년, 두만강 가에서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 애써 참아오던 눈물 흘리시며 손저어 주시던 어머니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고 보고싶어도 볼 수가 없고 불러도 대답없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불효한 딸자식을, 이 못난 누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기근에 숨겨지던 고난의 행군시절 자신의 몸집만 한 커다란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고운 얼굴에 구슬땀을 흘리시며 세 자식들을 먹여 살리시려 칠팔십리길을 험없이 오가시던 우리 어머니,

그때는 그것이 어머니여서 당연한 것 인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었음을 제가 엄마가 되고 돌아보니 이제야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비 오듯 흐르는 땀방울 한번 닦아드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두 다리 주물러드리고 그만 좀 쉬시라고, 한 번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꼭 안아 드렸었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늦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 가슴에 차오릅니다

없는 살림에도 세 자식들의 생일상에는 어뜨게 해서든 떡 한 접시라도 올려주시면서 정작 자신의 생일은 늘 잊고 사셨던 어머니, 한 달이 더 지나면 어머니 칠순 생신이신데 제 손으로 어머니 생신상 한번 차려 드리고 우리가족 모두 행복한 밥상에 모여 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히 보고싶고 그리운 나의 어머니

우리 다시 만나게 될 통일되는 그 날까지 꼭 건강히 살아계서 주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놓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멀리 남쪽에서 북녘하늘 바라보며 어머니딸 올림

“

기획 3

역사기행

임진왜란 최초로 수성에 성공한 진주대첩
 임진왜란 최초로 거북선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둔 사천해전
 그날의 격전지였던 진주성과 선진리성을
 만나러 갑니다.

”

기획 3

역사
기행

2022년 진주 역사기행

김수녀 경남 좋은벗들

10월 16일 일요일 9시,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가을날, 우리는 임진왜란의 격전지 진주성으로 출발, 공북문에서 오늘 역사기행에 함께 하는 좋은벗들을 만났다. 진주, 거제, 창원, 김해지회의 경진대 학생 120명을 포함하여 경남 각지에서 총 160여명의 좋은 벗들이 모였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중이 만나는 자리인지라 여기저기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가 정겨웠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느껴질때 쯤 인사를 마친 국장님이 “그들로 들어가서 서 편하게 들으셔라” 라고 반가운 말씀을 해주셔서 그들에 삼삼오오 앉거나 서서 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 초기 일본은 한달음에 평양성까지 점령하고, 임금은 도망간 답



진주성공북문 집결

답한 상황에서 진주성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국장님의 세세한 설명에서 알 수 있었다. 남강 너머의 산에서는 의병들이 횃불을 들고 피리 불고 북치며 교란작전으로 응원했고 성안에서는 김시민 장군의 지휘아래 민관이 하나가 되어 성을 지켜냈다고 한다. 이에 분통을 느낀 왜군은 1년 후 2차 전투에서 5만명 이상의 군사를 이끌고 진주성을 다시 공격하였고 백성들과 병사, 지휘관들이 힘을 합쳐 치열하게 싸웠으나 25번째 싸움에서 아깝게 패했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미루어 짐작해볼 뿐이다. 하지만 일본군도 타격이 커서 서쪽으로 진격이 어려웠다고 한다.

당시 진주성의 승리와 민관의 결사항전이 없었다면 전라도가 뚫렸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의 목숨 뿐만 아니라 조선의 운명이 어찌 되었을지 아찔한 순간이었다.

유유히 흐르는 남강 위에 아름다운 촉석루,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 속에 뛰어들었던 의암바위 그리고 국립진주박물관을 둘러 본 후 경전대 학생들과는 헤어지고 본격적인 역사기행을 위해 사천 선진리성으로 이동했다.

진주성의 승전보와 명나라의 참전으로 수세에 몰린 왜군은 사천 선진리성에 수십 개의 왜성을 쌓고 장기주둔하며 농성을 했다고 한다. 이후 일제

강점기때 왜군장수 후손들이 성을 매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봄이 되면 벚꽃 나들이코스가 되었다. 선진리성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의 역사를 바로 알기보다는 나들이 장소로 인식하는 현실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깝다.



선진리성 천수단



사천앞바다(사천해전장소)

도자가 있었음에 감사하며 감동이 밀려온다.

선진리성에는 싸움이 끝나고 왜군들에 의해 귀와 코, 목이 베어진 병사들을 수습하여 만든 무덤 조명군총이 있다. 조명군총에서 다함께 묵념을 하고 마지막 여정인 사천이 한눈에 보이는 사천읍성에 도착했다. 수양공원으로 조성된 이곳에서 훌륭한 장수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기룡 장군을 만날 수 있었다.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장점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라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며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본다. 어려움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기행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고 지금 이순간 깨어 있으니 우리도 언제든지 함께하고 행동할 수 있으리라.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오늘따라 유독 내가 누리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 🌻



사천읍성 팔각정 앞

“

기획 4

김장담기

”

김장축제

|

두 북

두북에서 부울지역 김장축제

이두심 동래 · 금정 · 사하 · 중유산 · 남유산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12일
- 행사장소 : 두북수련원 JTS참고
- 참석자 : 40가정, 20가정 지원
- 봉사자 : 8명

지난 해 좋은벗분들과 즐겁게 김장행사를 해본 경험이 있던 터라 두북에서 여러 지회가 함께하는 이번 김장행사가 기대되었습니다.



두북김장행사에 함께 하지는 지부장님의 추천에 규모가 커지는 것에 약간의 부담은 두북에서 애지중지 기른 배추를 좋은벗분들께 맛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 앞에 가볍게 날려버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손수 농사지은 배추와 양념으로 다섯 집의 18명이 먹을 일년치 김장 행사를 하는 집안의 둘째 며느리인 저는 김장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명절 보다 더 큰 행사로 해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김장을 하다 보니 부담스럽고, 언젠가부터는 김치도 안좋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이 들으시면 기절할 이야기지만 배고픈 멧돼지가 밭에 내려와서 농

사지은 배추를 다 먹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잠꼬대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잔치집 같은 김장 행사를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뵈는 때마다 차마 전 빠지고 김치를 사먹겠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있던 제가 좋은벗과 김장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빵 터집니다.

그런데 좋은벗과 함께하는 김장행사에 십수년 간의 시댁김장행사 경험이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다니 어깨가 절로 펴지고 당당해집니다. 덕분에 며느리 역할이 가볍게 느껴지고 좋아하는 좋은벗분들을 볼 때면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 소임이 복인 것은 확실합니다.

주말 아침, 빨간 고무장갑을 낀 김장유니폼 차림에 김치통을 들고 좋은벗분들이 한팀씩 도착합니다. 김장으로 인연이 된 중울산지회 두 분이 반갑게 두 팔 걷어부치고 무체를 썰고 양념을 무치며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가 북한식이 아니라서 낯설수도 있는데 배추도 맛있고 양념도 맛깔스럽다고 만족해하는 한마디에 체력 배터리 급속충전이 되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칼잡고 양념섞고, 배추 버무리는 사이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만하실 때라 전하니 이렇게 재밌는 걸 벌써 끝내냐며 진심으로 아쉬워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크게 남습니다.

“윗동네 언니들 넘 일 잘하시네요~”라고 하니 “내래 봉사 할 땐 언제라도 불러주라우요~ 이



런 거 넘 좋아해요~”

말씀만으로도 넉넉해지는 현장에 내 김치도 담고 이웃김치도 담그는 모습이 정토회소속 봉사자?인 줄 착각을 잠시 했습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미있게 하시니 행사 진행되는 동안 좋은벗분들의 숨은 저력에 놀라고, 윗동네 아랫동네 분들이 김치로 대동단결 되는 현장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하지회 꼭지 김진태님께서 처음하는 김장축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감사한 마음이었고 사전에 좋은벗들과 소통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치통을 들고 돌아가시며 고맙다고 하시니 뿌듯한 마음이고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금정지회에 한 좋은벗분은 늘 그러했지만 오늘 김장도 나눔의 기쁨으로 좋은벗들에 대한 좋은벗들 활동가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으며 앞으로 더 잘 참가하시겠다고 하였고, 또 다른 좋은벗분은 김장 후에 타지역 좋은벗 동료들 만나 챙겨온 밥과 밀바찬을 나눠 먹으며 소풍은 것처럼 정말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터도 같이 열려서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어 여러모로 즐겁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행복을 듬뿍 느끼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김장행사, 다음 해를 약속하며 인증샷으로 마쳤습니다.

부울좋은벗과 함께 한 김장~ 감사합니다.



서툼어도 한마음으로

송태교 경주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13일
- 행사장소 : 두북수련원 JTS창고

좋은벗들 김장지원에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과 주최하는 우리측 또한 처음하는 행사라 긴장되고 서툼 진행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먹했던 좋은벗분들과의 사이가 마칠 때 쯤에는 편한 이웃처럼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한 김장어울마당

김경화 포항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13일
- 행사장소 : 두북수련원
- 참석자 : 20가정
- 봉사자 : 8명



김장에 필요한 양념 장보기를 좋은벗분들과 봉사자가 함께 서로 입맛에 따라 다름을 알고 장을 보니 좋았습니다. 좋은벗분들 입맛에 맞게 양념 만들기를 해서 북한식 김장을 맛볼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유기농 배추, 무우로 만든 맛있는 김치 한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좋은벗분들이 김장 담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점심식사도 하였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뒤풀이가 잔치집 같았습니다. 김장 담그기를 마치고 나비장터에서 유기농 먹거리도 구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겠다

김미정 노원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14일
- 행사장소 : 민○네
- 참석자 : 4가정(민○네, 고○네, 지○이네, 호○이네)
- 봉사자 : 허은경, 윤영주, 박혜진, 정순금

올해도 김치 속 양념을 기부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허은경님이 해남 절임 배추를 예약하여 좋은 절임 배추가 배달이 되어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민○엄마가 장소를 제공해 줘서 좋은 벗들이 모여서 같이 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념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모두가 함께 도와서 잘 마쳤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미리 직접 만들어서 일부러 준비해 놓으신 조선족 순대와 곁절이를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도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좋은벗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김장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참석하지 못한 이웃들까지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이 많은 김치를 담그지?’하는 약간 심난한 마음과, ‘양념이 너무 적어서 맛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다 함께 일심으로 했고, 마치고 나서 곁절이를 먹어보니까 ‘맛있어서이번 김장 김치를 좋은벗분들 가족이 다들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하고 흐뭇한 마음입니다.

은○우네는 김장 신청은 했으나, 대학 수업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해○이네도 함께 하지 못해서 봉사자들이 대신하였습니다.

처음 해 봤습니다

최옥분 부천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13일 / 16일 / 19일
- 행사장소 : 김○○님댁 / 황○○님댁 / 김○○님댁
- 참석자 : 2가정 / 4가정 / 4가정(2가정 참여)
- 봉사자 : 최옥분, 차보경, 차은경 / 이정희, 김순애 / 민재윤, 허진영, 진수명, 임진미

김장을 난생 처음 해보는데 김○○님 지휘로 봉사자 3인과 이웃의 좋은 벗 한 분이 오셔서 같이하니 재미있고 빨리 끝내서 좋았습니다. 아이있는 집 뭇은 덜 맵게 배려했고 시끌시끌하게 웃으며 하니 정겨웠습니다



김장재료를 구입하며 김장준비 처음 해봤습니다. 구입한 재료의 맛, 제 날짜에 받기, 부재료로 뭘 써야 하는지 등 염려가 많아 여기 저기 물어 준비했습니다. 주위에 스승들이 많아서 충분하 참고될 사항을 알려주어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이○○님 지휘로 함께 준비된 속을 쓱쓱 문질러 넣었습니다. 이○○님이 준비해 온 돼지감자



도 석박지로 썰어 넣어 넣었습니다. 익으면 아삭아삭 맛있다고 합니다. 하하호호 웃으며 재미있게 1시간여만에 김장이 똑딱 끝났습니다. 류○○님은 매운 것이 싫다고 양념을 덜 넣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주려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아기 엄마를 배려해서 김장 일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역할을 나눠 일을 척척 해냅니다. 북한 김치에는 젓갈을 많이 안쓰고 명태를 송덩송덩 썰어 넣어 시원한 맛을 낸다고 하네요.

김○○님 댁으로 김장을 위해 준비물을 가지고 걱정도 함께 모였습니다. 인심 넉넉하신 김○○님이 이사한 집을 내어 주셨고 편안하게 김장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빠르게 김장을 했습니다. 약 1시간정도 진행되었고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김장재료가 김○○님이 믿고 드시던 것이라 소개받았는데 다른 분들도 맛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김장김치를 TV에서 보던 대로 굴에 싸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니 바로 소래포구에서 석화굴을 사와 찌 주셨습니다. 지난번 뵈었을 때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몰랐는데 동작도 빠르고 거침없으시고 손도 크시고 다른 좋은벗분들과 만남이 활발하셨습니다.



나눠서 하니 재미있고

박춘숙 서대문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20일
- 참석자 : 6가정
- 봉사자 : 지○○, 정덕법사님, 안경자, 김충례, 김영숙, 김미현, 강민주, 윤용순, 한예진, 류계영, 이영애
- 기부자 : 제향법사님, 안경자, 주정숙, 주점란, 이찬희, 김충례, 김미현, 한양순, 김연수, 지상금, 정명란, 류계영, 배지은, 김영숙



봉사자분이 장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기부해 주셔서 풍성한 김장이었습니다. 처음 참석했는데 서로 나눠서 일을 하니 재미있고, 어머니가 가만히 바라봐주시는데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최성선 구미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19일
- 행사장소 : 모례원(모례장자 생가터)
- 참석자 : 27가정 (19가정 참석, 8가정 배달)
- 봉사자 : 20명



한분 한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해내는 현장을 직접 보게 되어 큰 감동이었습니다. 노오란 배추 속살이 환한 미소 한줌에 맛있게 절여지겠어요. 원광명법사님이 끓여주시는 시원한 배춧국을 맛볼 수 있었고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금방 부쳐 주신 배추전과 햇김치로 밥을 먹으며 행복이 뭐 별거냐? 이런 게 행복이지 했습니다. 3일동안 모자이크붓다들이 기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좋은벗들 김장축제로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내년이 기대됩니다. 좋은벗분들이 직접 김장을 하시는 모습이 활기차 보여 좋았습니다. 좋은벗분들과 함께 김치를 버무릴 수 있어 재미있었고, 김치를 이렇게 제공받아 감사합니다. 우리들끼리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해마다 챙겨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최현희 송파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20일
- 참석자 : 장○○님댁
- 참석자 : 5가정
- 봉사자 : 이명화, 신은경, 최현희



코로나 발생 이후로 법당이 없어지고 전염이 우려되어 김장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벗인 장○○님이 기꺼이 집을 내어 주셔서 좋은벗 다섯분과 봉사자 3명이 절인배추 60키로로 김장을 했습니다.

좋은벗 댁에서 하게 되니 좋은벗분들이 주도가 되어 더 활기차고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렇게 오프로 함께 하니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며

윤정인 달서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19일
- 참석자 : 아도모레원
- 참석자 : 11가정(12명 참석)
- 봉사자 : 29명



행사를 위해 목, 금, 토 3일간에 걸쳐 배추, 무 뽑고 다듬어 씻고 절이고 양념 만들어 김장이 완성되기까지 총 30여분이 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좋은벗 한 가정 당 10kg의 김장 김치가 제공되었고 김장이 끝난 후에는 법사님의 아도모레원 소개와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좋은벗분들은 연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나들이가 쉽지 않았는데 쾌청한 날씨 속에 김장도 하고 신라 불교 성지도 알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3일간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여러 봉사자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친정집에 온 딸들 마냥

허남춘 서초 좋은벗들

- 행사일 : 2022년 11월 21일
- 참석자 : 3가정
- 봉사자 : 5명



맛나게 김장을 한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좋은벗분들과의 만남에서 한민족임을 새삼 깨닫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행사와 달리 김장을 함께 하니 좋은벗분들과 더 가깝고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 좋은벗분들의 긍정적이고 유쾌한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도 도움을 드렸다가보다 그 분들의 에너지를 받아 저까지 밝아지는 행복한 경험을 하여 감사한 마음입니다.

윗동네분 친정집에 온 딸들 마냥 가족 같은 분위기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만남이 정말 좋고 고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마음, 그 작은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오늘의 작은 행복이 이루어지고 이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강화통일정진

지금도 진행중인 우리들의 통일염원의 기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종윤

- 일시 : 2022년 11월 19일
- 장소 : 강화통일전망대
- 참석자 : 35명



후원해 주신 좋은벗들입니다

• 8월, 9월, 10월, 11월 신규 후원입니다. (2022. 8.1~2022.11.30)

00000000133	김지우	000000002534	김선희	000000002552	서창완
000000002508	허해선	000000002535	김준형	000000002553	유선화
000000002509	김연옥	000000002536	김대욱	000000002554	진은교
000000002510	차영미	000000002537	오혜원	000000002555	최영미
000000002511	한태용	000000002538	신창엽	000000002556	조성욱
000000002513	최경	000000002539	임은령	000000002557	신동찬
000000002516	이희주	000000002540	서경혜	000000002558	정태식
000000002519	김홍춘	000000002541	이선후	000000002559	허유성
000000002520	황보지훈	000000002542	마은경	000000002560	유귀자
000000002521	이주현	000000002543	이교욱	000000002561	천영숙
000000002522	정다운	000000002544	최희정	000000002562	이해경
000000002526	남기경	000000002545	김미정	000000002563	이미경
000000002528	왕명숙	000000002546	화성지희	000000002564	성기섭
000000002529	김동민	000000002547	법무법인 태림	000000002565	박경희
000000002531	강정희	000000002548	석정현	000000002566	민명수
000000002532	황호순	000000002550	백미숙	000000002569	황현이
000000002533	전혜경	000000002551	송권준	000000002570	기남용

• 8월 후원입니다.

[일반후원회원]

윤태순 정정원 정기찬 최선희 박현호 강종윤 고정순 구연연 길미숙 김경희 김남홍 김미나 김석순 김승희
 김금숙 조금연 김현진 박승호 이혜림 강호일 고지선 구자걸 길현자 김규혁 김대순 김민정 김선문 김영실
 송영규 이주현 법륜스님 오민정 강영희 고평숙 광봉준 권효순 김경란 김근식 김 만 김봉환 김선정 김영주
 유윤식 정경희 이지현 오환석 강용순 고미숙 구미경 기모란 김경분 김기연 김미경 김석범 김성진 김월금

김인식 박애란 오재민 이지은 조정희 황화숙 김세일 김미경 김익권 문태운 백강순 양혜영 이미나 이혜원
 김재영 박인경 오정숙 이참한 조 협 박주하 강득록 김민정 김인희 민영희 백단심 양희준 이미란 이화승
 김재호 박주영 오정택 이창희 조희옥 왕명숙 강리원 김민정 김재규 민춘희 백영일 여경민 이미숙 임미순
 김정숙 박혜숙 오지인 이철호 주동규 이외순 강보길 김민정 김재훈 박경숙 백용대 여경화 이봉자 임수신
 김중순 박호인 오희영 이혜경 주선우 남기경 강유진 김민중 김정옥 박경훈 서영란 오명옥 이상건 임 철
 김진민 박홍주 용채명 이화경 지민규 채영은 강재성 김백수 김정옥 박경희 서영홍 오미옥 이상만 장경선
 김학련 방서연 우서정 이희주 지삼금 강정희 강태경 김상원 김정원 박근영 서주연 오병찬 이상열 장세만
 김 혁 배미령 유수님 임미희 진광자 문귀숙 강현기 김선경 김정윤 박민식 서창무 오세준 이상필 장정화
 김형국 배상훈 유우인 임윤석 차영미 오문택 강희석 김선희 김정임 박민정 석선정 오세철 이선경 장창호
 김형익 백혜경 유원근 임진영 최 경 이영미 고경옥 김성유 김중복 박분숙 설정경 오진환 이선민 전귀재
 김홍희 백혜은 유재성 임혜진 최기진 강성연 고관규 김세호 김종희 박선훈 성향아 우복덕 이선호 전병찬
 김희경 서석민 윤여훈 임희진 최동호 박수미 고병엽 김소영 김지영 박선희 손경연 유은희 이서미 정구락
 남연우 설민영 윤영실 장경원 최보이 박순천 고연화 김수녀 김지은 박성원 손영미 유정재 이성운 정다운
 노기선 성광자 윤옥순 장도연 최복희 손은숙 고지안 김수훈 김찬우 박성준 손영상 윤상석 이소현 정란희
 노옥재 손규만 윤혜숙 장성심 최용선 신강희 박도순 김숙녀 김창수 박순옥 손재선 윤석황 이연순 정래식
 노주형 손대성 이경향 장영자 최원상 고은별 권미향 김순남 김태완 박순희 송기형 윤은희 이연순 정미숙
 노지희 손영희 이경희 장영주 최원석 권윤정 권은하 김순영 김하정 박승우 송민령 윤인숙 이 영 정보성
 류석현 손정숙 이길자 전미선 최정연 김미숙 권이슬 김순영 김 항 박신서 송민석 윤태욱 이영숙 정선경
 류시성 송승원 이다경 전영옥 하연숙 이경화 권재영 김순희 김향숙 박영주 송지우 윤희영 이영애 정선영
 류제표 송태화 이덕아 정경숙 하지유 김성연 권태윤 김승환 김현숙 박재현 신순숙 이갑성 이영익 정성아
 류지현 송필순 이명희 정근혜 한상훈 황호순 권호기 김애자 김현우 박정수 신순임 이경선 이영휘 정수희
 문은영 신미란 이상현 정미숙 한영옥 김병주 금두희 김양지 김현지 박주영 신정원 이경숙 이은경 정순자
 문정연 신숙경 이상현 정미현 한용탁 박정옥 기세환 김영숙 김현희 박준경 신현희 이근진 이은노 정순진
 박경석 신주호 이서현 정안숙 한지연 소희주 김경실 김영은 김형숙 박진현 신혜정 이금림 이 인 정승연
 박금옥 신창연 이순자 정용구 한태용 오덕진 김경필 김용철 김형희 박진희 안봉진 이기남 이재문 정안수
 박민경 심연우 이오영 정점순 한혜옥 이덕기 김경희 김원진 김화숙 박철웅 안선영 이길업 이정임 정영미
 박병진 심지현 이유헌 정현태 허지연 이복승 김귀남 김원태 김희준 박현숙 안성환 이등우 이종민 정영수
 박봉진 심홍아 이은경 정혜윤 허해선 이영미 김나경 김유연 노경미 박형준 안순희 이두희 이진미 정은영
 박상미 안도연 이은민 조경희 현효용 이원석 김대철 김은경 노 란 박홍남 안재호 이두희 이판오 정정관
 박상호 안상호 이은숙 조미라 홍지예 이효산 김리원 김은수 노은하 박희복 안정애 이명숙 이향애 정정영
 박선희 안재성 이정민 조수진 홍진숙 임순옥 김명희 김은자 문보빈 배명자 안정희 이명순 이현주 정정희
 박수일 오성일 이정순 조연정 황보지훈 김명자 김문영 김은희 문지영 배준식 양경희 이명화 이혜경 정현숙

조세분 채수연 최상민 최현숙 함정호 홍성호 정언모 김미영 박은아 여현주 이상광 드림앤안양지점
 조영구 채희주 최수지 하기완 허미혜 황인조 정유진 김미자 박태희 오미현 이승용 건축사사무소석원
 조해숙 천성필 최숙이 하선아 허영숙 강신준 강미정 김성혜 박현님 오진미 이시훈 LIHUILING
 조혜정 최경민 최장희 한규매 허윤숙 박동주 강영희 김진권 서예랑 우현자 이원제 장호숙 최병숙 조근연
 지명자 최고은 최정희 한미경 허은희 정동희 강희선 김창민 송봉섭 원춘경 이은설 전우성 현대식
 지은아 최광수 최중혁 한병기 허 준 황수남 권정아 김창진 송전용 유미환 이정희 정명화 한동필
 지은정 최다루한 최지원 한승희 현정련 김중호 김경애 김화영 심진희 유옥경 이창수 정월향 한승희
 지현숙 최대식 최진연 한의규 호수경 배선희 김경주 문예진 양기환 윤재송 임도영 정정원 유윤식
 차영석 최민서 최현서 한태숙 홍미경 신봉월 김도영 박윤호 양연수 이로운 장미애 조정희 이희자

[좋은이웃되기]

조순봉 김영숙 변소희 이은숙 전해진 허중보 김동윤 김향숙 박영덕 유두진 이원우 전정숙 최한구 구현오
 김현진 김영자 변중임 이정민 정성희 허지연 김명신 김현정 박영아 유미경 이 은 정근도 최현미 권정아
 조은서 김윤범 서양숙 이정순 정은영 현은영 김문영 김현주 박윤정 유정재 이은경 정다운 최현숙 김경주
 감미선 김인식 서재원 이정원 정지안 황경석 김민정 김혜영 박인환 윤득기 이 인 정래식 한근우 김규희
 고유진 김지훈 성태정 이정은 정지윤 권교중 김민정 김희경 박재범 윤여동 이인숙 정문희 한병기 김나형
 고정순 김필선 손영희 이지은 조경희 송미혜 김선경 노경미 박정숙 윤정호 이일현 정성호 한상윤 김명수
 구영모 김혜정 송승원 이창희 조미라 구영희 김성열 노 란 박준경 윤충현 이재관 정순자 한승희 김영희
 구자걸 노주형 송태화 이철호 조재익 강득록 김순정 노희산 박형준 은상봉 이점순 정윤재 한은호 문성해
 길현자 노혜원 오성일 이필영 조희옥 강문현 김순희 류민경 배정기 이경선 이종승 정현숙 한정현 문예진
 김가빈 류시성 오정택 이희미 천인근 강보길 김승호 문경자 백강순 이남운 이종인 조남국 함정호 박세미
 김경선 류제표 용재명 이혜경 최 경 강희배 김승환 문보빈 백동화 이동규 이지현 조세분 허윤숙 박은아
 김경원 문정연 위라미 이화경 최경임 광도순 김영숙 문정희 설은자 이동우 이향애 조주호 홍경희 박태희
 김미경 박선희 이다경 이희주 최복희 권은하 김원진 민춘희 손영미 이명우 인미화 주혜숙 홍순연 박현님
 김민범 박순화 이다혜 임미희 최순희 권지웅 김의경 박경숙 손익련 이민영 임경란 지명자 홍옥희 서성희
 김봉환 박현실 이미경 임지영 최영화 금동숙 김의권 박명복 송지우 이봉자 임수신 최경민 홍효정 송봉섭
 김분주 박혜숙 이방송 임진영 최원식 금두희 김정실 박선경 신정원 이상현 임은숙 최금자 황수진 송선희
 김석순 박홍주 이상한 임희경 최현이 길현배 김춘희 (법성스님) 양미진 이서영 임현식 최선미 황지영 신보영
 김선문 방미영 이서현 장수빈 추향자 김경현 김태완 박성원 양지연 이선민 장경선 최영남 황승오 안선영
 김선정 방서연 이외숙 장시은 허연숙 김국환 김태희 박수영 오병찬 이상애 장지만 최은숙 강정미 양홍심
 김수진 배미령 이유철 장희정 하재남 김남선 김한수 박순우 오윤주 이수민 전외자 최이남 고성임 엄지선
 김수현 백혜경 이윤정 전해준 한지연 김도연 김한영 박순희 유남욱 이 영 전은수 최인미 고현정 이로운

이만영 이은우 이정남 이희자 장말자 전우성 조순봉 최성희 황연주 limeihua MATSUHASHI SACHIYO
 이미애 이정남 이종필 장계환 장서우 정원자 최동숙 한승희

[평화지킴이]

김희경 김선정 방미영 이서현 정귀임 유창연 김미옥 김향희 서수정 이두희 전성일 최이남 박현님 황복현
 문영일 김수현 배미령 이순모 정귀임 유현복 김미현 김형규 설은자 이민영 전영은 최인규 세 응 이정숙
 지서윤 김연옥 백혜경 이영희 정도현 강득록 김민기 김효심 성경직 이봉자 전지호 최주호 송봉섭
 황복현 김용석 변애란 이오영 정은영 강문현 김민정 노경미 손동식 이상건 정경순 최현숙 송선희
 김현진 김용표 변지현 이유철 정태임 강보길 김민정 노 란 손영미 이상필 정근도 최현자 신미경
 신상룡 김은미 서석민 이윤정 조경희 강복용 김반아솔 노현승 송병순 이서영 정다운 추순옥 신민경
 양승용 김은정 석지원 이은숙 조미라 강옥선 김선경 문보빈 송은화 이선민 정래식 한병기 안선영
 감미선 김인식 손상우 이정민 조희옥 강인숙 김수안 민춘희 송지우 이수경 정문희 한승희 안인옥
 강영희 김인영 손영희 이정숙 채지영 강혜인 김수영 박경숙 신미혜 이숙형 정영숙 한지혜 오훈철
 강은주 김재호 송민선 이정순 최 경 광성일 김순희 박경옥 신정원 이유진 정현숙 함정호 이경수
 강정숙 김정원 송승원 이정원 최복희 권순경 김승환 박미경 안순주 이은경 정희숙 허 준 이경철
 고광숙 김창우 송태화 이정희 최영화 권순범 김양숙 박민주 안영민 이응노 조세분 홍상수 이로운
 고정순 김형준 신근년 이준식 최원식 권순환 김양희 박성미 여인옥 이 인 조수진 황광철 이순길
 구자걸 김혜정 안원봉 이지은 추향자 권은하 김영숙 박성수 예병우 이일현 조유진 황순옥 이혜림
 권태억 김홍춘 안재성 이창희 하연숙 권혜진 김영숙 박성원 예상희 이재관 조은미 황미경 이희자
 길미숙 류시성 예찬순 이철호 한서연 금두희 김영은 박순희 오병찬 이재호 조정민 권두한 임채남
 길현자 류제표 오성일 이태희 한용탁 길현배 김원진 박영아 오윤주 이점순 주문돈 권정아 장말자
 김갑우 문정연 오정택 이필영 한정수 김경률 김의권 박윤정 오은경 이정민 주혜숙 김경란 장 미
 김경원 박경옥 용재명 이혜경 한종업 김국희 김정길 박재범 오진환 이종인 지명자 김동식 장서우
 김기성 박선희 유나경 이화경 한지연 김기홍 김정철 박정태 우순점 이지애 지현우 김영희 전우성
 김대식 박순화 유시훈 이희주 허중보 김나경 김중애 박중훈 우영옥 이지현 채귀훈 문영일 조정미
 김미정 박진임 윤정호 임지영 현은영 김대익 김중태 박준경 유현정 이향애 최경민 문현숙 최순환
 김봉환 박중보 윤호숙 임진영 현희련 김덕운 김중광 박형준 윤충현 이혜영 최고은 박병관 최정희
 김석근 박현실 이경희 장 미 홍진숙 김동욱 김지영 방찬희 이경희 임수신 최선미 박은아 한승희
 김석순 박혜숙 이미경 장수빈 황경석 김명숙 김춘화 배준식 이경희 임현식 최수화 박태희 현재근
 김선문 박홍주 이상현 장희정 박인숙 김문영 김판신 백강순 이동건 장경선 대산향도선사조성민
 김선옥 방미경 이세롭 전부연 강경희 김미경 김향숙 서동찬 이동우 전병철 MATSUHASHI SACHIYO

[뉴스레터]

류제표 김승환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종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이지은 김현희

• 9월 후원입니다.

[일반후원회원]

윤태순 고지선 김선희 류석현 배미령 오재민 이순자 전미선 차영미 황보지훈 임순옥 권미향 김선경 김은희
김금숙 광봉준 김성진 류시성 배상훈 오정숙 이영미 전영옥 최 경 황화숙 이영미 권은하 김신문 김의권
송영규 구미경 김승희 류제표 백혜경 오정택 이오영 정경숙 최기진 김병주 정기찬 권이슬 김선희 김인희
정경희 구연연 김영실 류지현 백혜은 오지인 이유철 정근혜 최동호 황수남 채영운 권재영 김성유 김재규
김나현 구자걸 김영주 문은영 서석민 오희영 이은경 정미숙 최보이 김동민 이덕기 권태운 김세호 김재민
석연화 권호순 김월금 문정연 설민영 용채명 이은민 정미현 최복희 문귀숙 김세일 권호기 김소영 김재훈
박승효 기모란 김인식 박경석 성광지 우서정 이은숙 정안숙 최상민 오문택 최희정 금두희 김수녀 김정옥
뽀뽀스님 길미숙 김재영 박금옥 손규만 유수스님 이정민 정용구 최웅선 임은령 석호길 기세환 김수훈 김정옥
석은영 길현자 김재호 박민경 손대성 유우인 이지은 정점순 최원상 이외순 강득록 김경실 김수녀 김정원
오민정 김경란 김정숙 박병진 손영희 유원근 이참한 정현태 최원석 고은별 강리원 김경필 김순남 김정윤
오환석 김경분 김정임 박봉진 손정숙 유재성 이창희 정혜윤 최정연 권윤정 강보길 김경희 김순영 김종복
이지현 김경희 김중순 박상미 송승원 윤여훈 이철호 조경희 하연숙 김미숙 강성연 김귀남 김순희 김종희
최선희 김규혁 김진민 박상호 송태화 윤영실 이향애 조미라 하지유 박수미 강신준 김나경 김승환 김지영
정하린 김근식 김학련 박선희 송필순 윤옥순 이혜경 조수진 한상훈 박순천 강유진 김대철 김애자 김지은
박현호 김기연 김 혁 박수일 신미란 윤혜숙 이화경 조연정 한영옥 손은숙 강재성 김리원 김양지 김창수
김준형 김남홍 김형국 박애란 신숙경 이경향 이희주 조정희 한용탁 신강희 강태경 김명희 김영숙 김태완
김대욱 김대순 김형익 박인경 신주호 이경희 임미희 조 협 한지연 이경화 강현기 김문영 김영은 김하정
강영희 김 만 김홍희 박주영 신창연 이길자 임윤석 조 협 한태용 박정옥 강희석 김미경 김용철 김 향
강용순 김미경 김희경 박주하 심연우 이다경 임진영 조희옥 한혜옥 소희주 고경옥 김민정 김원진 김향숙
강중윤 김미나 남연우 박준경 심지현 이덕아 장경원 주동규 허지연 오덕진 고관규 김민정 김원태 김현숙
강호일 김민정 노기선 박혜숙 심홍아 이명희 장도연 주선우 허해선 유경희 고병엽 김민정 김유연 김현우
고광숙 김석범 노옥재 박호인 안상호 이상현 장성심 지민규 현효용 이복승 고연화 김민중 김은경 김형숙
고미숙 김석순 노주형 박홍주 안재성 이상현 장영자 지상금 홍지예 이원석 고지안 김백수 김은수 김형희
고정순 김선정 노지희 방서연 오성일 이서현 장영주 진광자 홍진숙 이효산 박도순 김상원 김은자 김화숙

김희준 박순희 서경혜 안도연 우복덕 이명화 이영희 전귀재 정정영 최장희 호수경 드림앤안양지점
노경미 박승우 서영란 안봉진 유은희 이미나 이은노 전병찬 정정희 최중혁 홍미경 건축사사무소석린
노 란 박신서 서영홍 안선영 유정재 이미란 이 인 정구락 정현숙 최지원 홍성호 NI HULLING
노은하 박영주 서주연 안성환 윤상석 이미숙 이재문 정다운 조세분 최진연 황인조 김진권 원춘경 전우성
문보빈 박재현 서창무 안순희 윤석황 이봉자 이정순 정동희 조영구 최현서 김중호 김찬우 유미환 정월향
문지영 박정수 석선정 안재호 윤은희 이상건 이정임 정란희 조해숙 최현숙 배선희 김창민 유옥경 정정원
문태운 박주영 설정경 안정애 윤인숙 이상만 이종인 정래식 조혜정 하기완 신봉월 김창진 유옥식 정하린
민영희 박진현 성향아 안정희 윤태욱 이상열 이진미 정명화 지명자 하선아 정유진 김현지 윤재송 조금연
박경숙 박진희 손경연 강경희 윤후영 이상필 이판오 정미숙 지은아 신규매 석연화 김하영 이로운 조정희
박경훈 박철웅 손영미 양혜영 이갑석 이선경 이현주 정보성 지은정 한미경 정인모 문예진 이상광 채수연
박경희 박현님 손영상 양혜준 이경선 이선민 이혜경 정선경 지현숙 한병기 정재필 박윤호 이승용 최대식
박근영 박현숙 손재선 여경민 이경숙 이선호 이혜원 정선영 차영석 한승희 감미정 박은아 이시훈 최병숙
박동주 박형준 송기형 여경화 이근진 이상미 이화승 정성아 채희주 한의규 강영희 서예량 이원제 최정희
박민식 박홍남 송민령 오명옥 이금림 이성운 임미순 정수희 천성필 한태숙 강희선 송복섭 이은경 한대식
박민정 박희복 송민석 오미옥 이기남 이소현 임수신 정순자 최경민 함정호 권자아 송전용 이은설 한동필
박분숙 배명자 신순숙 오병찬 이길업 이연순 임 철 정순진 최은희 허미혜 김경애 송지우 이정희 한승희
박선훈 배준식 신순임 오세준 이동우 이연순 임희진 정안수 최광수 허영숙 김경주 심진희 이창수
박선희 백강순 신정원 오세철 이두희 이영 장경선 정영미 최다루한 허윤숙 김도영 양기환 이희자
박성원 백단심 신창엽 오진미 이두희 이영숙 장세만 정영수 최민서 허은희 김미영 양영수 임도영
박성준 백영일 신현희 오진환 이명숙 이영애 장정화 정은영 최수지 허 준 김미자 오미현 장미애
박순옥 백용대 신혜정 오혜원 이명순 이영익 장창호 정정관 최숙이 현정련 김성혜 우현자 장호숙

[좋은이웃되기]

전보명 길현자 김수진 김희경 박현실 서재원 이다경 이은숙 이혜경 장희정 조재익 최현이 권교중 금동숙
조은서 김기빈 김수현 노주형 박혜숙 성혜정 이다혜 이정민 이화경 전혜준 조희옥 추항자 임은령 금두희
송미혜 김경선 김영숙 노혜원 박홍주 손영희 이미경 이정은 이희주 전혜진 천인근 하연숙 구영희 길현배
김순영 김경원 김명자 류시성 방미영 송승원 이방숙 이지은 임미희 정성희 최 경 하재남 강득록 김경현
강미선 김미경 김윤범 류제표 방서연 송태화 이상한 이창희 임지영 정은영 최경임 한지연 강보길 김국환
고유진 김민범 김인식 문정연 배미령 오성일 이서현 이철호 임진영 정지안 최복희 허종보 강희배 김남선
고정순 김분주 김지훈 박선희 백혜경 오정택 이외숙 이필영 임희경 정지윤 최순희 허지연 광도순 김도연
구영모 김석순 김필선 박순화 변소희 용재명 이유철 이향애 장수빈 조경희 최영화 현은영 권은하 김동윤
구자걸 김선정 김혜정 박준경 서양숙 위라미 이윤정 이현미 장시은 조미라 최원석 황경석 권지용 김명수

김명신 김익권 노희산 박윤정 오병찬 이동우 이인숙 장서우 조세분 한건우 황승오 김한영 양홍심 장계환
 김문영 김재민 류민경 박인환 오윤주 이만영 이일현 장지만 조주호 한병기 강문현 문성해 엄지선 장말자
 김민정 김정실 문경자 박재범 유남욱 이명우 이재관 전외자 주혜숙 한상윤 강정미 문예진 이로운 전우성
 김민정 김춘희 문보빈 박현님 유두진 이민영 이점순 전은수 지명자 한승희 고성임 박세미 이미애 정원자
 김선경 김태완 문정희 박형준 유미경 이봉자 이정순 전정숙 최경민 한운호 고현정 박은아 이은경 조순봉
 김선문 김태욱 박경숙 배정기 유정재 이상현 이정원 정금도 최금자 한정현 구현오 서성희 이은우 최동숙
 김성열 김태희 박명복 백강순 윤득기 이서영 이종승 정다운 최선미 함정호 권정아 송봉섭 이정남 최성희
 김순정 김한수 박선경 백동화 윤여동 이선민 이종인 정래식 최양남 허윤숙 김경주 송선희 이정남 한승희
 김순희 김항숙 (법성스님) 설은자 윤정호 이상애 이지현 정문희 최은숙 홍경희 김규희 송지우 이종필 황원주
 김승호 김현정 박성원 손영미 윤충현 이수민 인미화 정성호 최이남 홍순연 김나형 신보영 이희자
 김승환 김현주 박수영 손익련 은상봉 이 영 임경란 정순자 최인미 홍옥희 김영희 안선영 임경희
 김영숙 김혜영 박순희 신정원 이경선 이원우 임수신 정윤재 최한구 홍효정 강화동축보시금
 김원진 노경미 박영덕 양미진 이남운 이 은 임은숙 정현숙 최현미 황수진 limeihua
 김의경 노 란 박영아 양지연 이동규 이 인 장경선 조남국 최현숙 황지영 MATSUHASHI SACHIYO

[평화지킴이]

김희경 김기성 김정원 박현실 송승원 이상현 이태희 정은영 허종보 강인숙 김대익 김승환 김지영 박성원
 김효심 김대식 김창우 박혜숙 송태화 이새름 이필영 조경희 허지연 강혜인 김덕운 김양숙 김춘화 박순희
 신상룡 김미경 김형준 박홍주 신근년 이서현 이향애 조미라 현은영 광성일 김동욱 김양희 김판신 박영아
 양승용 김미정 김혜정 방미경 안원봉 이수모 이혜경 조희옥 현희련 구미선 김명숙 김영숙 김항숙 박윤정
 정태임 김석근 김홍춘 방미영 안재성 이영희 이화경 채지영 홍진숙 권수경 김문영 김영숙 김항희 박재범
 강미선 김석순 노현승 방찬희 예찬순 이오영 이희주 최 경 황경석 권순범 김미경 김영은 김형규 박정태
 강영희 김선옥 류시성 배미령 오성일 이유헌 임미희 최복희 임은령 권순환 김미옥 김완진 김효심 박종훈
 강정숙 김선정 류제표 백혜경 오정택 이윤정 임지영 최영화 박인숙 권은하 김미현 김용표 노경미 박주경
 고광숙 김수현 문정연 변애란 용채명 이은숙 임진영 최원석 강경희 권혜진 김민정 김익권 노 란 박현님
 고정순 김연옥 박경옥 변지현 유나경 이정민 장 미 추향자 유현복 금두희 김민정 김재민 문보빈 박형준
 구지걸 김용석 박선희 서석민 유시훈 이정숙 장수빈 하연숙 백정숙 길현배 김민아 김정길 박경숙 배준식
 권태억 김은미 박순화 서수정 윤명선 이정희 장희정 한서연 강득록 김경률 김선경 김정철 박경옥 백강순
 김미숙 김은정 박인경 석지원 윤정호 이준석 전부연 한용탁 강보길 김국희 김선문 김종애 박미경 서동찬
 길현자 김인식 박정임 손상우 윤호숙 이지은 정귀임 한정수 강복용 김기홍 김수안 김종진 박민주 설은자
 김갑우 김인영 박중보 손영희 이경희 이창희 정귀임 한중엽 강옥선 김나경 김수영 김종태 박성미 성경직
 김경원 김재호 박준경 송민선 이미경 이철호 정도현 한지연 강은주 김남심 김순희 김중광 박성수 손동석

손영미 오윤주 이경희 이숙형 이정원 전성일 정희숙 채귀훈 최현숙 황순옥 대산항도선사조성민
 송병순 오은경 이동건 이유진 이종인 전영은 조세분 천승영 최현자 황미경 MATSUHASHI SACHIYO
 신미혜 오진환 이동우 이응노 이지애 전지호 조수진 최경민 추순옥 강문현 문현숙 신미경 이순길 조정미
 신정원 우순점 이두희 이 인 이지현 정경순 조유진 최고은 한병기 권정아 박병관 신민경 이은경 지서윤
 안순주 우영옥 이민영 이일현 이진영 정금도 조은미 최선미 한승희 김경란 박은아 안선영 이혜림 최정희
 안영민 유정재 이봉자 이재관 이혜영 정다운 조경민 최수화 한지혜 김동식 세 웅 안인옥 이희자 한승희
 여인옥 유창연 이상건 이재호 임수신 정래식 주문돈 최순환 함정호 김민기 송봉섭 오훈철 임재남 현재근
 예병우 유현정 이상필 이점순 장경선 정문희 주혜숙 최이남 허 준 김영희 송선희 이경수 장말자 황복현
 예상희 윤충현 이서영 이정민 장서우 정영숙 지명자 최인규 홍상수 문영일 송은화 이경철 장 미
 오병찬 이경희 이선민 이정순 전병철 정현숙 지현우 최주호 황광철 문예진 송지우 이로운 전우성

[뉴스레터]

류제표 김승환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종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이은경
 이지은 김현희

• 10월 후원입니다.

[일반후원회원]

정동희 김미정 구미경 김대순 김영실 김홍희 문정연 박준경 손영희 안재성 윤여훈 이서현 이철호 장영자
 김금숙 이미경 구연연 김 만 김영주 김희경 박경석 박혜숙 손정숙 오민정 윤영실 이선후 이향애 장영주
 김순영 화성지희 권호순 김미경 김월금 남연우 박금옥 박효인 송승원 오성일 윤옥순 이순자 이혜경 전미선
 법륜스님 박현호 기모란 김미나 김인식 노기선 박민경 박홍주 송필순 오재민 윤혜숙 이오영 이화경 전영옥
 송영규 강영희 길미숙 김민정 김재영 노옥재 박병진 배미령 신미란 오정숙 이경향 이유헌 이희주 전해경
 이지현 강용순 길현자 김봉환 김재호 노주형 박봉진 배상훈 신숙경 오정택 이경희 이은경 임미희 정경숙
 정경희 강종윤 김경란 김석범 김정임 노지희 박상미 백혜경 신주호 오희영 이교옥 이은민 임윤석 정근혜
 조성옥 강호일 김경분 김석순 김종순 류서현 박상호 백혜은 신창연 용채명 이길자 이은숙 임진영 정미숙
 최선희 고광숙 김경희 김선문 김진민 류시성 박선희 서석민 심연우 우서정 이다경 이정민 임혜진 정미현
 박승호 고미숙 김규혁 김선정 김학련 류제표 박수일 설민영 심지현 유수남 이덕아 이정순 임희진 정안숙
 오환석 고정순 김근식 김선희 김 혁 류지현 박애란 성광지 심홍아 유우인 이명희 이지은 장경원 정용구
 정귀임 고지선 김기연 김성진 김형국 마은경 박인경 손규만 안도연 유원근 이상현 이침한 장도연 정점순
 후원금 박봉준 김남흥 김승희 김형익 문은영 박주영 손대성 안상호 유재성 이상현 이창희 장성심 정현태

정혜윤 허해선 진은교 김나경 김원태 김희준 박현님 안봉진 이근진 이용노 정안수 하기원 강희선 유옥경
조경희 현효용 이영미 김대욱 김유연 노경미 박형준 안성환 이금림 이 인 정영미 하선아 권정아 윤상석
조미라 홍지예 황수남 김대철 김은경 노 란 박홍남 안순희 이기남 이정임 정영수 한구매 김경애 윤재송
조수진 홍진숙 백미숙 김리원 김은수 노은하 박희복 안재호 이길엽 이종인 정은영 한미경 김경주 이로운
조연정 황보지훈 송권준 김명희 김은자 문보빈 방서연 안정애 이동우 이진미 정정영 한병기 김도영 이상광
조정희 황화숙 이덕기 김문영 김은희 문지영 배명자 안정희 이두희 이판오 정정희 한승희 김미영 이승용
조 협 박주하 강득록 김미경 김익권 문태운 배준식 양경희 이두희 이현주 정현숙 한외규 김미자 이시훈
조희옥 이영미 강리원 김민정 김인희 민영희 백강순 양혜영 이명숙 이혜경 조세분 한태숙 김성혜 이원제
주동규 정하린 강보길 김민정 김재규 민춘희 백영일 양희준 이명순 이혜원 조영구 함정호 김창민 이은설
주선우 이외순 강유진 김민정 김재민 박경숙 백용대 여경민 이명화 이화승 조해숙 허미혜 김창진 이재문
지민규 김동민 강재성 김민중 김재훈 박경훈 서경혜 여경화 이미나 임미순 조혜정 허영숙 김현지 이정희
지상금 김수미 강태경 김백수 김정숙 박경희 서영란 여현주 이미란 임수신 지명자 허윤숙 김화영 이창수
진광자 문귀숙 강현기 김상원 김정옥 박근영 서영홍 오명옥 이미숙 임 철 지은아 허은희 문예진 임도영
차영미 박수미 강희석 김선경 김정옥 박민식 서주연 오미옥 이봉자 장경선 지은정 허 준 박윤호 장미애
최 경 박순천 고경옥 김선희 김정원 박민정 서창무 오병찬 이상건 장세만 차영석 현정련 박은아 장효숙
최기진 손은숙 고관규 김성유 김정윤 박분숙 석선정 오세준 이상만 장정화 채수연 호수경 박현숙 전우성
최동호 신강희 고병영 김세일 김중복 박선훈 성향아 오세철 이상열 장창호 채희주 홍미경 백단심 정연모
최보이 오문택 고연화 김세호 김중희 박선희 손경연 오지인 이상필 전귀재 천성필 홍성호 서예랑 정월향
최복희 임은령 고지안 김소영 김지영 박성원 손영미 오진미 이선경 전병찬 최경민 황인조 송봉섭 조정희
최웅선 고은별 곽도순 김수녀 김지은 박성준 손영상 오진환 이선민 정구락 최고은 강신준 송전용 최봉숙
최원상 권윤정 권미향 김수훈 김진권 박순옥 손재선 오혜원 이선호 정다운 최광수 박동주 심진희 한대식
최원석 김미숙 권은하 김숙녀 김찬우 박순희 송기형 우복덕 이상미 정란희 최다루한 황수남 안선영 한동필
최정연 유선화 권이슬 김순남 김창수 박승우 송민령 유은희 이상운 정래식 최대식 김종호 양기환 한송희
하연숙 이경화 권재영 김순영 김태완 박신서 송민석 유정재 이소현 정명화 최민서 배선희 양연수 채영운
하지유 강성연 권태윤 김순희 김하정 박영주 송지우 윤석황 이연순 정미숙 최수지 신봉월 오미현 이희자
한상훈 박정옥 권호기 김승환 김 향 박재현 송태화 윤은희 이연순 정보성 최숙이 정유진 우현자 김순영
한영옥 소희주 금두희 김애자 김항숙 박정수 신순숙 윤인숙 이영 정선경 최창희 감미정 원춘경 정정원
한용택 오덕진 기세환 김양지 김현숙 박주영 신순임 윤태욱 이영숙 정선영 최정희 강영희 유미환 조금연
한지연 이복승 김경실 김영숙 김현우 박진현 신정원 윤후영 이영애 정성아 최지원 드림앤안양지점
한태용 이원석 김경필 김은은 김형숙 박진희 신창엽 이갑성 이영익 정수희 최진연 건축사사무소석원
한혜옥 이효산 김경희 김용철 김형희 박철웅 신현희 이경선 이영휘 정순자 최현서 법무법인 태림
하지연 임순옥 김귀남 김원진 김화숙 박태정 신혜정 이경숙 이은경 정순진 최현숙 LI HUILING

[좋은이웃되기]

강미선 노주형 용채명 이화경 최복희 곽도순 김완진 박경숙 송지우 이봉자 장경선 최양남 황승오 양홍심
고정순 노혜원 위라미 이희주 최순희 권은하 김의경 박명복 송태화 이상현 장지만 최은숙 강정미 엽지선
구영모 류시성 이교욱 임미희 최영화 권지웅 김익권 박선경 신정원 이서영 전외자 최이남 고성임 이로운
길현자 류제표 이다경 임지영 최원석 금동숙 김재민 (법성스님) 양미진 이선민 전은수 최인미 고현정 이미애
김기빈 마은경 이다혜 임진영 최현이 금두희 김정실 박성원 양지연 이성애 전정숙 최한구 구현오 이은우
김경선 문정연 이미경 임희경 추항자 길현배 김춘희 박수영 오병찬 이수민 정금도 최현미 권정아 이정남
김경원 박선희 이방숙 장수빈 하연숙 김경현 김태완 박순우 오윤주 이 영 정다운 최현숙 김경주 이정남
김미경 박순화 이상한 장시은 하재남 김국환 김태욱 박순희 유남옥 이원우 정래식 한건우 김규희 이종필
김민범 박준경 이서현 정희정 한지연 김남선 김태희 박영덕 유두진 이 은 정문희 한병기 김나형 이희자
김봉환 박현실 이외숙 전혜준 허종보 김대욱 김한영 박영아 유미경 이은경 정성호 한상윤 김명수 임경희
김분주 박혜숙 이우철 전혜진 하지연 김도연 김향숙 박윤정 유정재 이 인 정순자 한승희 김영희 장계환
김석순 박홍주 이윤정 정성희 현은영 김동윤 김현정 박인환 윤득기 이인숙 정윤재 한운호 김한수 장말자
김선문 방미영 이은숙 정은영 황경석 김명신 김현주 박재범 윤여동 이일현 정현숙 한정현 문성해 전우성
김선정 배미령 이정민 정지안 청원법당 김문영 김혜영 박정숙 윤정호 이재관 조남규 함정호 문예진 정원자
김수진 백혜경 이점순 정지윤 권교중 김민정 김희경 박현님 윤충현 이점순 조세분 허윤숙 박세미 최동숙
김수현 변소희 이정은 조경희 김지우 김민정 노경미 박형준 은상봉 이정원 조주호 홍경희 박은아 최성희
김영숙 서양숙 이지은 조미라 임은령 김선경 노 란 방서연 이경선 이종송 주혜숙 홍순연 서성희 한송희
김영자 서재원 이창희 조은서 구영희 김성열 노희산 배정기 이남운 이종인 지명자 홍옥희 송봉섭 황연주
김윤범 성혜정 이철호 조재익 한혜자 김순정 류민경 백강순 이동규 이지현 최경민 홍효정 송선희 조순봉
김인식 손영희 이필영 조희옥 강득록 김순희 문경자 백동화 이동우 임미화 최금자 황수진 신보영
김지훈 송승원 이향애 천인근 강문현 김승호 문보빈 설은자 이만영 임경란 최선미 황지영 안선영
김필선 오성일 이현미 최 경 강보길 김승환 문정희 손영미 이명우 임수신 limeihua
김혜정 오정택 이혜경 최경임 강희배 김영숙 민춘희 손익련 이민영 임은숙 MATSUHASHI SACHIYO

[평화지킴이]

이정숙 강정숙 김갑우 김봉환 김수현 김인영 김홍춘 박경옥 박준경 방찬희 서수정 안원봉 유나경 이교욱
김희경 곽광숙 김경원 김석근 김연옥 김재호 노현승 박선희 박현실 배미령 손상우 안재성 유시훈 이미경
양승용 고정순 김기성 김석순 김용석 김정원 류시성 박순화 박혜숙 백혜경 손영희 예찬순 윤명선 이상현
신상룡 권태억 김대식 김선문 김은미 김창우 류제표 박인경 박홍주 변애란 송민선 오성일 윤정호 이새롭
강미선 김미숙 김미경 김선옥 김은정 김형준 마은경 박정임 방미경 변지현 송승원 오정택 윤호숙 이서현
강영희 길현자 김미정 김선정 김인식 김혜정 문정연 박종보 방미영 서석민 신금년 용채명 이경희 이순모

이영희 임진영 한용탁 강옥선 김문영 김정길 박성미 송은화 이동건 이종인 조유진 추순옥 세 응 최정희
 이오영 장 미 한정수 강은주 김미경 김정철 박성수 송지우 이동우 이지애 조은미 한병기 송봉섭 한승희
 이유철 장수빈 한중엽 강인숙 김미옥 김종애 박성원 송태화 이두희 이지현 조정민 한승희 송선희 현재근
 이윤정 장희정 한지연 강혜인 김미현 김종진 박순희 신미혜 이민영 이진영 주문돈 한지혜 신미경 문영일
 이은숙 전부연 허중보 곽성일 김민정 김중태 박영아 신정원 이봉자 이혜영 주혜숙 함정호 신민경 지서윤
 이정민 전해경 허지연 권수경 김민정 김중광 박윤정 안순주 이상건 임수신 지명자 허 준 안선영 황복현
 이정숙 정귀임 현은영 권순범 김반아슬 김지영 박재범 안영민 이상필 장경선 지현우 홍상수 안인옥
 이정순 정귀임 현희련 권순환 김선경 김춘화 박정태 여인옥 이서영 전병철 채귀훈 황광철 오훈철
 이정희 정도현 홍진숙 권은하 김수안 김관신 박종훈 예병우 이선민 전성일 천승영 황순옥 이경수
 이준석 정은영 황경석 권혜진 김수영 김항숙 박주경 예상희 이수경 전영은 최경민 백정숙 이경철
 이지은 조경희 임은령 금두희 김순희 김향희 박태정 오병찬 이숙형 전지호 최고은 황미경 이로운
 이창희 조미라 박인숙 길현배 김승환 김형규 박현님 오윤주 이유진 정경순 최선미 구미선 이순길
 이철호 조희욱 유창연 김경률 김양숙 김호심 박형준 오은경 이은경 정금도 최수화 권정아 이혜림
 이태희 채지영 강경희 김국희 김양희 노경미 배준식 오진환 이응노 정다운 최순환 김동식 이희자
 이필영 최 경 유현복 김나경 김영숙 노 란 백강순 우순점 이 인 정래식 최이남 김영희 임채남
 이향애 최복희 백미숙 김남심 김영숙 문보빈 서동찬 우영옥 이일현 정문희 최인규 문예진 장말자
 이혜경 최영화 정귀임 김대옥 김정은 민춘희 설은자 유정재 이재관 정영숙 최주호 문현숙 장 미
 이화경 최원석 강득록 김대익 김원진 박경숙 성경직 유현정 이재호 정현숙 최현숙 박병관 전우성
 이희주 추항자 강문헌 김덕운 김용표 박경옥 손동석 윤충현 이점순 정희숙 최현자 박은아 조정미
 임미희 하연숙 강보길 김동욱 김의권 박미경 손영미 이경희 이정민 조세분 대산항도선사조성민
 임지영 한서연 강복용 김명숙 김재민 박민주 송병순 이경희 이정원 조수진 MATSUHASHI SACHIYO

[뉴스레터]

류제표 김승환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종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이지은 김현희

• 11월 후원입니다.

[일반후원회원]

김금숙 기모란 김중순 박애란 심홍아 이상현 전영옥 최원석 신강희 고병엽 김선경 김정옥 박경숙 배명자
 송영규 길미숙 김진민 박인경 안도연 이서현 전해경 최정연 고은별 고연화 김성유 김정옥 박경훈 배준식
 유윤식 길현자 김학련 박주영 안상호 이선후 정경숙 하연숙 권윤정 고지안 김세호 김정원 박경희 백강순
 정경희 김경란 김 혁 박혜숙 안재성 이순자 정근혜 하지유 김미숙 박도순 김소영 김정운 박근영 백영일
 감사합니다 김경분 김형국 박효인 오성일 이오영 정미숙 한상훈 이경화 권미향 김수녀 김종복 박민식 백용대
 법륜스님 김경희 김혁익 박홍주 오재민 이유철 정미현 한영옥 이외순 권은하 김수훈 김중희 박민정 서경혜
 유경희 김규혁 김홍희 방서연 오정숙 이은경 정인숙 한용탁 박정옥 권이슬 김수녀 김지영 박분숙 서영란
 이지현 김근식 김희경 배미령 오정택 이은민 정용구 한지연 소희주 권재영 김순남 김지은 박선훈 서영홍
 최선희 김기연 남연우 배상훈 오지인 이은숙 정점순 한태용 오덕진 권태윤 김순영 김진권 박선희 서주연
 박승호 김남홍 노기선 백혜경 오희영 이정민 정현태 한혜옥 이복승 권호기 김순영 김찬우 박성원 서창무
 박현호 김대순 노옥재 백혜은 용재영 이지은 정혜윤 하지연 이영미 금두희 김순희 김창수 박성준 석선정
 오민정 김 만 노주형 서석민 우서정 이참한 조경희 허해선 이원석 기세환 김승환 김태완 박순옥 설정경
 오환석 김미나 노지희 석정현 유수님 이창희 조미라 현효용 이효산 김경실 김애자 김하정 박순희 성향아
 김장보시 김민정 류석현 설민영 유우인 이철호 조수진 홍지예 임순옥 김경필 김양지 김 항 박승우 손경연
 유귀자 김봉환 류시성 성광지 유원근 이향애 조연정 홍진숙 백미숙 김경희 김영숙 김향숙 박신서 손영미
 이혜경 김석범 류제표 성기섭 유재성 이혜경 조 협 황보지훈 이덕기 김귀남 김정은 김현숙 박영주 손영상
 천영숙 김석순 류지현 손규만 윤여훈 이화경 조희옥 황화숙 민명수 김나경 김용철 김현우 박재현 손재선
 강영희 김선문 마은경 손대성 윤영실 이희주 주동규 박주하 황현이 김대옥 김원진 김현희 박정수 송기형
 강용순 김선정 문은영 손영희 윤옥순 임미희 주선우 이영미 김세일 김대철 김원태 김형숙 박주영 송민령
 강중윤 김선희 문정연 손정숙 윤혜숙 임윤석 지민규 김병주 강득록 김리원 김유연 김형희 박준경 송민석
 강호일 김성진 박경석 송승원 이경향 임진영 지상금 김수미 강리원 김명희 김은경 김화숙 박진현 신동찬
 고광숙 김승희 박금옥 송태화 이경희 임혜진 진광자 문귀숙 강보길 김문영 김은수 김희준 박진희 신순숙
 고미숙 김영실 박민경 송필순 이교옥 임희진 차영미 오문택 강유진 김미경 김은자 노경미 박철웅 신순임
 고정순 김영주 박병진 신미란 이길자 장경원 최기진 임은령 강재성 김민정 김은희 노 란 박태정 신정원
 고지선 김월금 박봉진 신숙경 이다경 장도연 최동호 정태식 강태경 김민정 김익권 노은하 박현님 신창엽
 광봉준 김인식 박성미 신주호 이덕아 장성심 최보이 강성연 강현기 김민정 김인희 문보빈 박현숙 신현희
 구미경 김재영 박상호 신창연 이명희 장영자 최복희 박수미 강희석 김민중 김재규 문지영 박현준 신혜정
 구연연 김재호 박선희 심연우 이미경 장영주 최웅선 박순천 고경옥 김백수 김재민 문태윤 박홍남 안봉진
 권효순 김정숙 박수일 심지현 이상현 전미선 최원상 손은숙 고관규 김상원 김재훈 민영희 박희복 안선영

안성환 오세철 이금림 이상열 이은경 장경선 정성아 지은아 최영미 허영숙 정언모 드림앤안양지점
 안순희 오진미 이기남 이상필 이응노 장세만 정수희 지은정 최장희 허윤숙 정유진 건축사사무소석원
 안재호 오진환 이길업 이선경 이 인 장정화 정순자 차영석 최지원 허은희 채영운 김현지 유미환 임도영
 안정애 오혜원 이동우 이선민 이재문 장창호 정순진 채수연 최현서 허 준 기남용 김화영 유옥경 장미애
 안정희 우복덕 이두희 이선호 이정순 전귀재 정안수 채희주 최현숙 현정련 감미정 문예진 유윤식 장효숙
 양경희 유은희 이두희 이상미 이정임 전병찬 정영미 천성필 하기완 호수경 강영희 박윤호 윤상석 전우성
 양혜영 유정재 이명숙 이상운 이종인 정구락 정영수 최 경 하선아 홍미경 강희선 서예량 윤태순 정월향
 양희준 윤석황 이명순 이소현 이진미 정다운 정은영 최경민 한구매 홍성호 권정아 송봉섭 이로운 정정원
 여경민 윤은희 이명화 이연순 이판오 정란희 정정영 최고은 한미경 황인조 김경애 송전용 이상광 조근연
 여경화 윤인숙 이미나 이연순 이현주 정래식 정정희 최광수 한병기 강신준 김도영 심진희 이승용 조정희
 여현주 윤태욱 이미란 이 영 이혜경 정명화 정현숙 최다루한 한승희 김종호 김미자 양기환 이시훈 최병숙
 오명옥 이갑성 이미숙 이영숙 이혜원 정미숙 조세분 최대식 한의규 박동주 김선희 양영수 이원제 최정희
 오미옥 이경선 이봉자 이영애 이화승 정보성 조영구 최민서 한태숙 배선희 김성혜 오미현 이은설 최진연
 오병찬 이경숙 이상건 이영익 임수신 정선경 조혜정 최수지 함정호 신봉월 김창민 우현자 이정희 한대식
 오세준 이근진 이상만 이영휘 임 철 정선영 지명자 최숙이 허미혜 이희자 김창진 원춘경 이창수 한승희

[좋은이웃되기]

허유성 김선정 마은경 손영희 이유철 임지영 조희옥 황경석 길현배 김순희 김향숙 박성원 서창완 윤정호
 조은서 김수진 문정연 송승원 이윤정 임진영 천인근 포항지회 김경현 김승호 김현정 박수영 설은자 윤충현
 강미선 김수현 박선희 송태화 이은숙 임희경 최경임 권교중 김국환 김승환 김현주 박순우 손영미 은상봉
 고유진 김영숙 박순화 오성일 이정민 장수빈 최복희 임은령 김남선 김영숙 김혜영 박순희 손익련 이경선
 고정순 김영자 박현실 오정택 이정은 장시은 최순희 송미혜 김대욱 김원진 노경미 박영덕 신정원 이남운
 구영모 김윤범 박혜숙 용채명 이지은 장희정 최영화 구영희 김도연 김의경 노 란 박영아 양미진 이동규
 길현자 김인식 박흥주 위라미 이창희 전해준 최원석 강득록 김동윤 김의권 노희산 박인환 양지연 이동우
 김가빈 김지훈 방미영 이교욱 이철호 전해진 최현이 강문현 김명수 김재민 류민경 박재범 오병찬 이만영
 김경선 김필선 방서연 이다경 이필영 정성희 추향자 강보길 김명신 김정실 문경자 박경숙 오윤주 이명우
 김경원 김혜정 배미령 이다혜 이향애 정은영 하연숙 강희배 김문영 김춘희 문보빈 박준경 유남욱 이민영
 김민범 김희경 백혜경 이미경 이현미 정지안 하재남 곽도순 김민정 김태완 문정희 박현님 유두진 이봉자
 김봉환 노주형 변소희 이방숙 이혜경 정지윤 한지연 권은하 김민정 김태욱 박경숙 박형준 유미경 이상현
 김분주 노혜원 서양숙 이상한 이화경 조경희 허종보 권지웅 김선경 김태희 박명복 배정기 유정재 이서영
 김석순 류시성 서재원 이서현 이희주 조미라 허지연 금동숙 김성열 김한수 박선경 백강순 윤득기 이선민
 김선문 류제표 성혜정 이외숙 임미희 조재익 현은영 금두희 김순정 김한영 (법성스님) 백동화 윤여동 이상애

이수민 이재관 임경란 전정숙 정현숙 최금자 한건우 홍경희 고성임 문예진 limeihua
 이 영 이점순 임경희 정금도 조남국 최양남 한병기 홍순연 고현정 박세미 MATSUHASHI SACHIYO
 이원우 이정순 임수신 정다운 조세분 최은숙 한상운 홍옥희 구현오 박윤정 양홍심 이정남 정원자
 이 은 이정원 임은숙 정래식 조주호 최아남 한승희 홍효정 권정아 서성희 엄지선 이종필 조순봉
 이은경 이종승 장경선 정문희 주혜숙 최인미 한운호 황수진 김규희 송봉섭 이로운 이희자 최동숙
 이 인 이종인 장지만 정성호 지명자 최한구 한정현 황승오 김나형 송선희 이미애 장계환 최성희
 이인숙 이지현 전외자 정순자 최 경 최현미 함정호 황지영 김영희 신보영 이은우 장말자 한승희
 이일현 인미화 전은수 정윤재 최경민 최현숙 허윤숙 강정미 문성해 안선영 이정남 전우성 황연주

[평화지킴이]

김경란 김석순 박경옥 송태화 이유철 전부연 현은영 길현배 김승환 노 란 서창완 윤충현 이점순 조수진
 김희경 김선문 박선희 신근년 이윤정 전해경 현희련 김경률 김양숙 문보빈 설은자 이경희 이정원 조유진
 신상룡 김선옥 박순화 안원복 이은숙 정귀임 홍진숙 김국희 김양희 박경숙 성경직 이경희 이종인 조은미
 정태임 김선정 박인경 안재성 이정민 정귀임 황경석 김기홍 김영숙 박경옥 손동석 이동건 이지애 조정민
 정태임 김수현 박정임 예찬순 이정숙 정도현 임은령 김나경 김영숙 박미경 손영미 이동우 이지현 주문돈
 양승용 김연옥 박종보 오성일 이정희 정은영 박인숙 김남심 김영은 박민주 송병순 이두희 이진영 주혜숙
 강미선 김용석 박현실 오정택 이준석 조경희 박경희 김대욱 김완진 박성미 송은화 이민영 이혜영 지명자
 강영희 김용표 박혜숙 용채명 이지은 조미라 강경희 김대익 김의권 박성수 신미혜 이봉자 임수신 지현우
 강은주 김은미 박흥주 유나경 이창희 조희옥 유현복 김덕운 김재민 박성원 신정원 이상건 장경선 채귀훈
 강정숙 김은정 방미경 유시훈 이철호 채지영 강득록 김동욱 김정길 박순희 안순주 이상필 전병철 천승영
 고광숙 김인식 방미영 윤명선 이태희 최복희 강문현 김명숙 김정철 박영아 안영민 이서영 전성일 최 경
 고정순 김인영 방찬희 윤정호 이필영 최영화 강보길 김문영 김종애 박재범 여인옥 이선민 전영은 최경민
 권태억 김재호 배미령 윤호숙 이향애 최원석 강복용 김미경 김종진 박정태 예병우 이숙형 전지호 최고은
 길미숙 김정원 백혜경 이경희 이혜경 추향자 강옥선 김미옥 김중광 박종훈 예상희 이우진 정경순 최수화
 길현자 김창우 변애란 이교욱 이화경 하연숙 강인숙 김미현 김지영 박주경 오병찬 이은경 정금도 최아남
 김갑우 김형준 변지현 이미경 이희주 한서연 강혜인 김민정 김춘희 박준경 오윤주 이응노 정다운 최아남
 김경원 김혜정 서석민 이상현 임미희 한용택 광성일 김민정 김판신 박태정 오은경 이 인 정래식 최인규
 김기성 김홍춘 서수정 이새롭 임지영 한정수 권수경 김반아출 김향숙 박현님 오진환 이일현 정문희 최주호
 김대식 류시성 손상우 이서현 임진영 한종업 권순범 김선경 김향희 박형준 우순점 이재관 정영숙 최현숙
 김미정 류제표 손영희 이순모 장 미 한지연 권순환 김수안 김형규 배준식 우영옥 이재호 정현숙 최현자
 김봉환 마은경 송민선 이영희 장수빈 허종보 권은하 김수영 김호심 백강순 유정재 이점순 정희숙 추순옥
 김석근 문정연 송승원 이오영 장희정 허지연 금두희 김순희 노경미 서동찬 유현정 이정민 조세분 한병기

한승희 홍상수 권정아 김영희 박병관 송봉섭 안선영 이경철 이희자 전우성 대산항도선사조성민
한지혜 황광철 권혜진 문영일 박윤정 송선희 안인옥 이로운 임채남 조정미 MATSUHASHI SACHIYO
함정호 황순옥 김동식 문예진 백정숙 신미경 오훈철 이순길 장말자 지서윤 한송희 황복현
허 준 황미경 김민기 문현숙 세 웅 신민경 이경수 이혜림 장 미 최정희 현재근

[뉴스레터]

류제표 김승환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종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이지은 김현희